(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08 1982년 4월27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April 27,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채 인 : 박 성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APR 3 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함승희(진)·윤혜련(선)·박은희(미)

미와재치의 제전·7백명 성황, 회관이전모금도

◆캐나다 미스·코리아 진 함승희양이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전면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미스코리아 캐나다 진…함승희!"

사회자 후라이보이 곽규석씨의 목소리가 사라지기 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함(22)양은 700여관중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돌출무대로 걸어나오면서 손으로 키스를 던졌다.

마지막까지 함양과 막상막하로 진을 겨루었던 윤혜련양은 실망의 빛을 지우면서 함양을 끌어안고 축하했다.

미스·캐나다 미에는 박은희(19)양이 당선됐고 매너상 안주영, 특기상 석인혜, 인기상 권미리양이었다. 또한 미스·코리아타운번영회에는 김선미, 미스·대한체육회 이정숙, 미스·한국일보에는 이은주양이 뽑혀 출전미녀 9명이 모두 수상했고 특히 석인혜양은 미스·한인회로도 뽑혀 2개의 상을 탔다.

다운타운 할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이날 미인대회에서는 한인회관 이전 성금을 위한 조한철 회관관리위원장의 호소에 호응, 1만6천여달러가 즉석에서 걷혔다.

◆제7회 캐나다미스코리아들
진=5번 함승희
선=9번 윤혜련
미=12번 박은희
매너=1번 안주영
특기=6번 석인혜
인기=11번 권미리
미스한인회=6번 석인혜
미스한국일보=8번 이은주
미스대한체육회=3번 이정숙
미스코리아타운번영회=7번 김선미

24일 밤 회장에는 6시 부터 인파가 몰려 예약인원 450명을 넘은 7백명이 빽빽히 입장했고 일부 교포는 되돌아 가야했다. 일부 입장객은 저녁식사를 놓치기도 했다.

8시 31분 사회자 피세영씨의 등장에 이어 국민의례, 대회장 박인순한인회장의 인사말, 외빈소개, 조관리위원장의 지원호소가 있었다.

심사위원 소개를 마친 왕년의 명 디스크·재키겸 배우 피씨는 하루 전날 도착한 선배 연예인 곽씨를 미인대회 사회자로 소개하면서 "「후」장로님이 요사이 한국 연예인교회 장로가 된후 예수님 닮은모습으로 머리를 볶았다"고 익살, 폭소를 자아냈다.

곽씨는 "요즈음은 연예사업보다 선교사업에 전념한다"고 교회 PR(?)을 하면서 무대뒤에 나열한 한복차림의 미녀 9명을 소개했다.

미녀들은 코리아·키튼스 악단의 도라지타령연주에 맞추어 관객들에게 큰절을 올린후 무대를 한바퀴 돌았다. 애교가 넘치는 6번 석인혜양은 준비한 부채로 얼굴을 가리면서 간드러지게 인사했다. 한복심사후 곽씨는 "나이도 먹고 장로가 돼서 수영복심사 사회만은 못하겠다"고 조크하며 공동사회자 피씨에 다시 바톤을 넘겼다.

"대부분 고등학교 학생이라는데 왜 이렇게 크냐? 캐나다물이 좋은가보다"는 곽씨의 말답게 수영복차림의 미녀들을 건강한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했다.

다시 등장한 곽씨는 서서히 농담보따리를 풀어 장내를 웃겼다. 그는 "캐나다공항에서 어떤 사람은 입국카드의 「섹스(Sex)」난에 남·녀 표시대신 일주일에 한번(Once a Week)"이라고 기입했다고 조크, 장내를 박장대소케 했다.

곽씨는 우아한 야회복차림의 미녀들과 개별인터뷰, 가장많은 웃음을 자아내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날의 최고미녀 함양이 "취미가 골동품수집"이라고 말하자 곽씨는 즉각 "남편될 사람은 돈이 많아야겠다"고 답했다. 최연소자 권미리양은 순진하고 솔직한 대답으로 때로는 곽씨를 당황케 해 인기상을 차지했다.

인터뷰심사후 특기자랑으로 윤혜련양의 피아노연주, 석인혜양의 「조국통일」에 관한 웅변, 이정숙양의 현대무용등이 선보였다.

심사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곽씨는 "LA에 도착후 시카고가는 비행기표를 사려고 투 시카고(To Chicago)했더니 표 두장이 나왔다. 다시 훠 시카고(For Chicagr)하니까 이번에는 4장이 나오더라"고 말했고 피씨는 "요새 서울서는 독·서(Dog Sir)가 한창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개·나리를 의미했다.

심사결과가 발표됐으나 최후까지 상을 못받은 함양과 윤혜련양은 "두사람중에 진과 선이 나온다"는 생각에 퍽 굳은 표정이었다. 긴장된 한 순간이 지나 곽씨의 최종 발표가 있자 80년도 진 허윤정양이 무대에 나와 간직해온 미녀왕관과 까운을 함양에게 물려줘 이날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번 대회는 토론토서 처음으로 시도, 성공한 「디너파티를 겸한 미인대회」였다.

◆사회자 곽규석씨와 피세영 (왼쪽)씨가 한복차림의 우아한 미녀들을 소개하기직전 익살을 나누고 있다.(아래)

정명화와 협연

한인교향악단4회공연

토론토 한인교향악단이 세계적 첼리스트 정명화씨와 협연하는 제4회 공연날자가 5월29일로 확정됐다.

김승순씨 지휘로 라이어슨대학강당(Ryerson Theatre, 43 Gerrad St, E.)에서 오후 8시 시작될 이번 공연의 연주곡목은 이미 발표된대로 로씨니의 윌리엄·텔 서곡,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in B Minor, Op.104), 베토벤의·교향곡 7번(in A Major, Op.92)이다.

티켓은 A석 $10, B석 $8, 문의처는 2900 Steeles Ave, E, #220 전화 416-881-8211 윤호섭씨이다.

◆최종 결과 발표직전 곽규석씨가 함승희양과 윤혜련(선·가운데)양과 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뒤에는 미로 뽑힌 박은희양.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점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 은, 증권, Bonds, 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 상 욱
증권투자의 핵심은 시기의 선택으로 싸이클의 Bottom(최저수준)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는 요사이처럼 증권값이 하락할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값이 연일 폭등하여 일반대중이 서로 사겠다고 모여 들때는 결코 잡을수 없다.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브랜돈운동구점 봄맞이골프 SALE

세일기간 : 4월말까지

15종류 고급골프채와 초보자를 위한 골프채 준비
30가지의 골프 CART와 골프백들을 다량입하!
그리고 세계최대 GOLF 신발 메이커제품인
ETONIC 골프신발과 TRETORN 골프신발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특히 여자들을 위한 골프의상이 준비
되어 있으며 동시에 남자용 GOLF T-SHIRTS
및 골프 세타가 준비되어 있읍니다.

BRANDON SPORTS 337 BLOOR ST W. 598-3732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영국, 포크랜드 재탈환

인명피해없이, 분쟁23일만 기습성공

(런던)영국은 포크랜드군도를 알젠티나에게 빼앗긴지 23일만에 일부영토를 재탈환했다.

헬리콥터로 수송된 영국해병대는 25일낮 남태평양의 사우스·조지아·아일랜드 상륙 2시간만에 그리트비켄항을 탈환, 이 섬을 간단히 점령했다.

이 섬을 지키던 140명의 알젠티나군은 큰 저항없이 항복, 영국군은 1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

마가렛·댓처 영국수상은 이날밤 의기양양하게 "방금 국방상으로부터 사우스·조지아에 유니언·잭(영국기)을 꽂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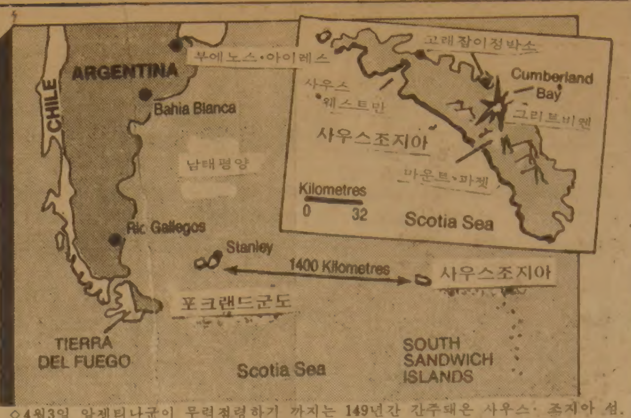
댓처수상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존·놋 영국국방상은 "알젠티나군의 인명피해는 아는 바 없다"고 덧붙였다. 놋국방상과 댓처수상은 4월3일 알젠티나군에게 포크랜드군도를 빼앗긴후 국민들로부터 "사임하라"는등 심한 공격과 압력에 시달렸었다.

1956년 수에즈·운하봉쇄사건이후 약30년만에 처음으로 외국군과 교전한 영국은 포크랜드군도 탈환에 국가의 위신과 권위를 걸었다.

심한 강풍속에서 군인들을 풀어놓는 영국군 헬리콥터를 재빨리 격퇴하지못한 알젠티나군은 접전 2시간만인 하오 2시 흰색기를 내걸고 항복했다.

이보다 앞서 영국해군특공대는 그리트비켄항 앞바다에서 식량과 의료품을 풀고있던 알젠티나군 산타·페 잠수함을 파손시키고 적어도 2명의 알젠티나군이 부상했다고 영국군 소식통들이 전했다.

한편 항복설을 부인하며 영국군에 재도전을 다짐한 알젠티나군은 원래 스페인이 양도한 포크랜드군도를 영국이 149년간 불법점령해왔다고 주장한 반면 영국은 이 섬의 1800명주민들이 계속 영국신민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고주장했다.



◇4월3일 알젠티나군이 무력점령하기 까지는 149년간 간주돼온 사우스· 조지아 섬. 이 섬에는 주민은 별로 없이 고래잡이들만 드문드문 흩어져 살고 있다.

시교위 제 3 국어 교육안

심한 반발 받아

정규수업시간에 제3국어(모국어)를 가르치자는 골자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던 토론토 시교육위원회 모국어교육특별연구반(반장: 토니·실리포)의 모국어교육 프로그램은 학부형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쳤다.

지난 22일 열린 모국어교육에 관한 최종보고서 공청회 는 4백여명의 학부형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회의장을 채운 가운데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야유나 환호속에 학부형대표 연사들은 이보고서를 "인종차별주의와 교육적게토화의 초대장"이라고 신랄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실리포반장은 모국어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주의와 분렬을 초래한다는 견해는 근거없는 착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같이 근거없는 말을 유포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종간의 분렬을 조장하는 자들이라고 힐난했다.

한 학부형은 "경제가 침체된 이때 토론토의 시민들은 자기 세금이 이같은 곳에 쓰여지는 것은 원할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반대발언자는 대부분 앵글로·삭손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6일로 마감하는 공청회에는 2백명이상의 학부형대표들이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위는 베티·스티븐슨 온타리오교육성장관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시작되는 모국어교육에 대한 시험계획안을 인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3월29일 발표된 최종보고서는 특정에트닉그룹의 학생을 기준치이상 가진 국민학교는 정규수업시간중에 그 에트닉의 모국어를 가르칠 것을 주장했다. 그리스어, 중국어, 이태리어및 폴튜갈어 같은 에트닉언어들이 위의 범주에 든다.

김남수씨 불로아지점장에

외환은행 5월하순 지점개설

5월하순 개점을 앞둔 캐나다외환은행 블로어지점장에 김남수(33)씨가 선정됐다.

외환은행에서 과장직을 맡고있는 신임 김지점장은 24일부로 한국외환은행에서 발령, 지점개설작업에여념이 없다.

블로아 627번지 한국관건너편에서 공사가 한창인 외환은행 블로아지점으로"그동안 교민들이 격어왔던교통의 불편등을 제거, 최대한의 편리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신임 지점장은 말했다.

전남대학과 ROTC 통역장교출신으로 74년 외환은행에 입사한 김남수지점장은 수출입업무 당좌, 대부등 마산, 광주, 명동지점 등에서 일선업무를 주로 맡았던 창구요원이기도 했다

20만달러를 들여 컴퓨터시설을 구입한 외환은행은

社說

신문과 독자

—맹목의 횡포를 삼가자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가 뉴스매체인 신문의 사명이라면, 독자들의 양식과 교양및 정서함양에 보탬이되는 것도 또 하나 신문의 사명이다.

제3의 사명—맹점·해악을 지적하고, 지상고발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고, 장래 피해를 예방함과 아울러 가해자나 범죄자를 각성시키는 "사회목탁"의 구실 또한 소중한 신문의 존재가치라 하겠다.

그런데, 간혹 독자 또는 비독자인 교민의 비양식적 강요·횡포가 신문당무자를 어리둥절케 할 때가 있어, 한번은 이 문제를 딛고 넘어가야 하겠다.

안면이나 신분(지위)등을 내세워 기사화의 가치가 없는 자기의 사사로운 일이나 가정 또는 소속단체에 관한 기사를 과장표현, 혹은 과찬하여 신문에 실어달라고 떼쓰는 일이 종종 있다.

혹은 신문이 꼭 보도해야할 사건, 또는 이곳 뉴스미디어에 보도됐거나, 이미 사직당국이 연루되어 조만간 백일하에 알려질 기정사실(범죄)을 기를 쓰고 보도를 막으려 드는 태도가 그 두번째 보기이다.

사건이 선의의 제3자나 공익에 크게 저해될 경우, 알고도 이를 보도안하는 태도는 악에 동조하는 결과를 빚기 쉬고, "1벌 100계"의 금언에 크게 위배되는 사이비 언론적 태도일 것이다. 그것은 또 언론의 직무태만이기도 하다.

신문이 교포사회의 맹점이나 개인의 비행을 보도하는 것은 결코 특종기사를 내려는 과욕에서가 아니요, 남의 결점을 들추어 폭로하려는 악취미에서도 아니며, 1에서 10까지가 다 유형·무형의 피해와 어둠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보다 큰 피해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선도자적 사명감의 소치임을 독자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기의 적수이거나 사이가 나쁘다하여 남의 맹점을 침소봉대, 신문에 내라고 우기는 형도 있다. 신문에 실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정확한 사실이어야 하고, 그것이 공익에 도움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기삿거리여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하겠다.

함부로 신문에 내라고 강요하는 식도 부당하거니와, "제발 빼달라"고 공갈까지 치는 사례는 민주시민으로서 교양있는 현대인으로서 굳이 빚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문·방송등 언론은 제대로의 윤리가 있고 규범이 있는 것이며, 그 종사자들은 보도하고 평필을 드는 분야에 있어서 일반독자들보다 직업적인 전문가이니 내고, 빼고, 크게 다루고, 적게 다루고는 신문자체의 권리의무요 재량권이니 제3자로서 좌우하려 드는 행패는 삼가야 마땅하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명언은 신문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면서도 신문을 읽는 독자와 신문제작자 모두에게 책임을 주고 있다.

「피아노神童」이 나왔다

12살된 그리스出生 디미트리스 스고로스君

난해한 라흐마니노프曲 완벽演奏

카네기홀서 내셔날심포니와 데뷔

音樂界선 "모짜르트代이을 巨木"

(LA지사발)금세기의 피아노 신동이 태어났다. 모짜르트의 대를 이을 이 신동은 올해 12살난 그리스태생의 디미트리스·스고로스군.

디미트리스는 지난주 카네기홀에서 머스티스라브 로스트로포비치 지휘아래 내셔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미국데뷔연주회를 가졌다.

지휘자 클라우디오·아바도는 디미트리스의 유럽연주회에 참석한후 「이같은 천재는 1세기에 한번정도, 태어난다」고 격찬했다.

아바도의 찬사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디미트리스는 미국초연때도 연주곡목을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콘첼토3번으로 선택했다.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노의 대가 블라디머호로위츠가 1928년에 자신의 작품을 연주한것을 듣고는 "그는 이곡은 완전히 소화했다"고 평했었다.

디미트리스도 이번에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무난히 소화시켰다. 그는 음악속으로 몰입, 한치의 음정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연주해냈다.

또한 그는 깜짝 놀랄만한 기교로 복잡한 악보들을 모두 연주 했으며, 극적 으로 곡의 분위기를 변조시켜갔다.

그는 앵콜곡으로는 프로코피에프와 리스트곡을 거뜬히 해치웠다.

연주가 끝나자 로스트로포비치는 「이같은 연주자는 생전처음 본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동 피아니스트 스고로스.

디미트리스는 7살때부터 피아노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하도 전기제품들을 좋아해 전기기술자가 될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야 그애가 진실로 음악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라고 디미트리스의 엄마는 회고했다.

그는 천부적인 음정구별력과 기억력을 소지하고있어 쉽게 피아노를 배웠다.

1977년에는 자작곡및 유명곡들로 마련한 첫번째 연주회를 성공리에 끝마치기도 했다. 그동안 디미트리스는 낮에는 평범하게 국민학교에 다니고, 저녁시간에는아테네 음악학교를 다녀, 오는 6월이면 졸업하게 되었다. 그는 졸업과 동시 음악대학교수자격증도 취득한다.

이외에도 수차례 피아노경연대회에서 수상을 차지했으며 독일, 스위스, 베네주엘라, 프랑스에서 여러차례 연주회를 가졌다. 독일의 뮨헨에서는 스칼라티, 베토벤, 쇼팡, 브라암스, 리스트의 곡들을 연주, 다재다능한 그의 실력을 과시했다.

비평가들은 그의 연주를 듣고는 그런 자그마한 소년에게서 어찌 그렇게 힘찬 정확과 열정이 쏟아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감탄하면서 그의 음악성을 천부적이라고 거침없이 표현했다.

그리스에서 잘알려진 의사인 디미트리스의 아버지는 「절대로 연습을 하라고 강요한적이 없다. 모든것은 그애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연주장밖에서의 디미트리스는 보통애들과 다름이 없이 장난하기를 더 좋아한다.

라흐마니노프곡을 익히는데 5~6일정도 소비했다는 그는 수영을 좋아한다고, 풋볼과 농구도 좋아하지만 손을 다칠까 금하고 있다.

지휘자 아바도는 "1世紀 한번나올 天才"評

美 프로풋볼 中繼料

史上최고 20억弗

NFL, 美 3大 TV와 5년契約

NFL(미프로풋볼리그)과 NBC·TV, ABC·TV, CBS·TV등 미국 3대 TV회사가 22일 TV사상 최고액수인 5년간의 20억달러 중계방송 계약을 맺었다. 20억달러 중계방송 계약은 81년도 프로풋볼시즌과 함께 끝난 총전계약(4년간 6억5천만달러) 보다 3배가 넘는 액수로 NFL소속 28개팀은 금년시즌부터 86년시즌까지 매년 평균 1천4백만달러씩을 각각 받게된다.

물론 NFL측은 이번 TV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지않지만 CBS가 7억~7억5천만달러, ABC가 6억5천달러~7억달러, NBC가 6억~6억5천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TV회사측은 종전 매경기당 23분씩이었던 광고시간을 1분연장, 24분씩으로 늘리며 계약이 끝나는 86년까지 케이블TV와의 중계방송 계약을 하지않겠다는 보장을 NFL측으로부터 받았다. NFL과 TV회사간의 기록적인 중계방송 계약은 현재 진행중인 NFL구단측과 프로풋볼선수와의 임상에 새로운 불씨를 던질것으로 보여진다.

TV廣告 1分연장등 條件으로

선수들 "年俸인상 안되면 罷業불사"

프로풋볼선수들의 평균연봉은 현재 9만달러정도. 그러니까 20만달러가 넘는 메이저리그 선수나 프로농구 선수에 비하면 반도 채 안된다.게다가 경기중 자주 있는 부상으로 인해 선수들의 평균수명이 4년정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NFLPA회장이자 오클랜드·레더즈팀의 주장인 진·업셔는 프로경력 15년의 고참이지만 그가 받는 연봉은 18만달러. 메이저리그에서 연봉 2백만달러선을 받고있는 개리·카터, 조지·포스터, 데이브·윈필드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되는 액수입은 물론 웬만한 2진 내야수 연봉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프로풋볼 구단들은 돈벌이에 상당한 재미를 보고있다.

구단들은 거의 매진되는 입장수입 외에도 TV중계방송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 현재 프로풋볼선수협회를 대표하고있는 변호사 에드·가비씨의 말에 따르면 프로풋볼 구단은 작년에 최저1천4백만달러에서 최고 1천9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구단측은 가비변호사의 주장이 과장된 액수라고 변명하면서 어느정도의 연봉인상으로 새계약을 맺으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

프로풋볼선수협회(NFLPA)는 82년도 새계약협정(총전계약은 7월15일 끝남)에서 연봉인상과 함께 구단수입의 55%분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때문이다.

선수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할뜻을 비치고 있는데 선수들의 이같은 주장에 일리가 없는것은 아니다.

재봉사 실태 파헤쳐

CBC 방송서 특집프로

한국및 필리핀등지에서 이민온 재봉사들의 꿈과 좌절, 노동실태와 문제점들을 파헤친 특집프로 "아이덴티티즈"(본성: Identities)가 5월9일 하오 3시부터 CBC래디오방송을 통해 방송된다.

CBC의 로렌스·윌씨가 위니펙및 몬트리얼의 재봉사들, 노조대표들과의 대담으로 엮은 이 방송은 74년 여류작가 쉐일라·아노퓨로스씨가 직접 재봉공으로 일한 경험을 쓴 글을 토대로 한것이다. 아노퓨로스여사는 "통풍이 잘 안되는 오염된 작업환경속에서 안전대책도 없이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저임금으로 안간힘을 쓰는 이민자들"을 묘사했었다.

Without fear
or
favor
—The Korea Times—

WANIN TAEKWON-DO
THE LEADING STYLE IN THE ART AND SCIENCE OF TAEKWON-DO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이경태 도장

제14주년 개관 기념및 이경태사범 8단 승단 기념을 자축하는뜻에따라 5월 한달동안 한인교포 신입생에 한하여 40% 특별 할인 우대합니다.

KYONG LEE TAEKWON DO CENTER

중앙도장: 2281 YONGE ST. (6Doors North of Eglinton)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E. (Just East of Pharmacy, Plaza) 759-2500

점심특별 스페샬

기 간 : 1982년4월 말 까지
시 간 : 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 : 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개장백반
$5.00 : 유부초밥, 생선초밥, 회덮밥, 김초밥

○ 해장국개시는형편상 4월말로연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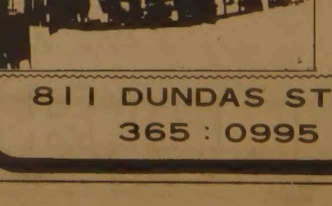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한식및 궁중요리사 : 김옥자 •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한 국 관
대표 : 나 옥 녀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WEDDING DREAMS LTD.

결혼에 필요한 모든준비가 되어있읍니다. 들리기만 하십시요.

- 웨딩가운 TUXEDO렌트 또는 세일
- 사 진
- 초청장 주문
- 꽃어랜지
- 결혼케익등



811 DUNDAS ST. W.
365 : 0995

결혼 3건중 1건 이혼

캐나다이혼율 20년간 5배증가

지난 20년동안 캐나다에서 이혼한 사람들의 숫자는 500%(5배)이상 증가했다. 총 성인인구당 이혼자수의 비율로 계산한 이 통계는 결혼3건중 1건이 이혼했음을 보였다. 캐나다 통계국에 의하면 61년부터 80년까지 20년간 15세이상의 여성에 대한 이혼여성의 비율은 560%(5.6배)로 늘어났다. 남성은 525%(5.25배)였다. 이기간중 이혼한 남성의 총수는 230,298명으로 전체성인남성 인구의 2.5%였고 이혼여성의 총합계는 311,584명으로전체성인여성인구의 3.3%에 이르렀다.

통계국은 이혼율증가의 원인을 밝히지 않았지만60년대 후반부터 비교적 자유로와진 이혼법과 독신생활을 선택하는 풍조가 주요원인으로 지목된다.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독신생활자들의 수가증가, 61년부터 80년까지 남자는 9%, 여자는 11.7%가 늘었다

◆21세기 의상—TV시리즈 「플라밍고 로드」의 미녀스타 모건·페어차일드양이 미래의 의상을 선보이고있다. 「2001년의 옴니패션」으로 이름붙여진 22일의 패션쇼에는 톱디자이너들이 21세기의 의상전망을 소개했다. 〈뉴욕—UPI〉

사진협회 월례회의 30일 삼우스튜디오

한인사진협회 4월 월례강좌가 30일(금) 하오7시30분 삼우스튜디오(58 Wade Av. Toronto, 537-7630)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서는 김명선씨의 사진재료 소개 전경수씨의 카메라강좌및 스라이드·쇼등이 있다.

삼우스튜디오(조각가 장연탁씨 운영)는 랜스다운 지하실역서 서북쪽에 있다.

한국일보
533-2361

◆의지의 달리기—캘리포녀인인 바트·반·하우젠(35)씨가 남가주 하이웨이 1번도로의 언덕을 힘겹게 올라오고있다. 오른쪽 아래다리가 의족인 하우젠씨는 오레곤주부터 멕시코국경까지 9백마일을 달리는중. 그는 이스터·실·소사이어티를위한 기금모집을 위해 달리고있다. 〈카디프·캘리포녀—AP〉

어린이 음악콩쿨 연기 출전자수 부족 8월로

토론토 한인장로교회(몬사 박희민)가 주최하는 어린이 음악콩쿨대회가 8월28일(토) 오후1시로 연기됐다.

신청마감일인 25일까지 합창부문 신청자가 없었고, 지정곡2곡 자유곡2곡 모두 3곡을 연습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연기키로 했다고 김인철 한인장로교회 전도사가 26일 밝혔다.

이 대회는 독창부, 중창부, 합창부로 나뉘어 대회 후원은 토론토 한국인 교회 학교협의회가 맡았다.

대회문의는 535-6864, 275-7276이다.

외국화장품 자유화 설탕, 커피, 주류등도

(서울24일=연합)한국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산화장품의 시판을 점차 자유화하기로했다고 24일 보사부당국이 발표했다.

당초 예정보다 1년앞당겨 외국산화장품 자유화가 실시되는 것은 국산화장품 가격이 외산보다 비싸고 국산품제조업자들이 품질개선노력에 자신을 못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사부가 밝혔다.

정부는 또한 외국산 설탕, 커피, 주류및 기타 40개 품목도 금년 하반기중 자유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고려보석 5주년 맞아 재고정리 대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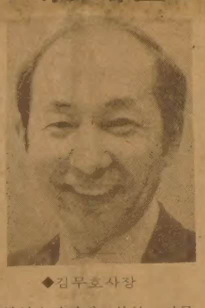
창사 만5년이 지난 고려보석은 재고정리 세일을 단행한다고 김무호사장이 밝혔다.

"정직과 성실, 성의있는 봉사를 사업모토로 한다."

김무호사장(51)은 "고려보석이 토론토의 명소 이튼센터와 함께 탄생하여서 굳건하게 성장, 이제는 교민들에게 좀 더 파격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고려보석은 토론토 다운타운(영·스트릿×던다스부터 퀸·스트릿까지)의 이튼센터 내(레블1) 중앙분수대 옆에 있으며 각종보석, 고급시계를 취급한다.

이번 재고정리 세일의 품목은 다이아몬드, 일본산 진주, 비취, 시계등이다.



◆김무호사장

「킴·매네지먼트」라는 경영자본회사도 경영, 대소각종사업체의 경영을 자문해 주기도 하는 김사장은 원래 한국서 광물학을 공부, 보석류와 인연을 쌓은 연세대 영문학과 출신으로 쉐익스피어에 심취, 지금도 온타리오주 쉐익스피어연극의 명소 스트랏포트에 자주 간다.

캐나다에 온 후 김사장은 온타리오정부주택성개발조정관(Developement Coordinator)으로 3년간 근무, 이때 어리지역의 시의회를 돌며 주택개발상황을 브리핑했다.

부인 김현옥여사는 공인회계사(RIA)로 현재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공부중이다.

〈독자투고〉

신발밧드

박 태 수

그때 동네우리들은 13살짜리에서 15살. 학교갔다오면 숙제고뭐고 책보를마루에 내던지고 밥한숟가락퍼묵고는 그대로 달성공원에 뛰 올라가서 천지를 모르고 깨춤치고, 까불고, 뛰고 놀았던 것이다. 깊은산속 공원에 들어가서 삼총사네, 달따니얀이네, 흑기사네하고 길쭉길쭉한 가죽나무를 꺽어 우리는 둘씩둘씩 패를지어 멋떨어지게칼싸움을 해댔다.

어—우, 아이쿠, 픽 쓰러지기도 하고……

대구달성공원은 시내에서 좀 변두리인 비산동에 있는데 지금처럼 대구시에서 관리하지는 않고, 50년대와 60년초까지 그대로방치해나둬, 자살자도 생기고 개죽은것도 아무데나 함부로 내버려 아주우범지역이나, 우리장난패 막동이들에게는 더할수없이 좋은 놀이터요, 잊을수없는 향수어린 곳이기도 하다.

"타잔사막으로 가다" 라는 영화를 학교단체로 관람을 하고는 집에와서 이내 공원에 올라가서 시퍼런이 우묵하게 꽉찬 수풀있는데를 찾아 칡넝쿨도아닌 이상하게 꾸불꾸불하고 길다란 줄기나무를 이리틀고 저리꼼고 해서 타잔이 타는줄처럼 만들어 가지고는 이언덕에서 저쪽건너소나무가지까지 휘—익 타고 날으며 아—아아—아 할때는 타잔이 바로왔다 다녔던것이다.

"썩부리, 밥묵고 공원에 온나"

"온야, 콩나물사러 갔다와서" "안오마 니 알제…"

호야, 길수, 판준이, 뭐 그런아이들과 나는 공원에우리만 아는 비밀장소에 여럿이 둘어앉을수 있도록삽으로 구덩이를 파놓고 가마니를 깔고 이기우리본부다?" 하고 매일같이 본부에 모여가지고 쌀을 한입까다여 가지고 그회고 야문 잇빨로, 꾸욱꾸욱 씹어 먹으니 그 구수하고 달삭한 맛이 희한했던 것이다.

배를 곪는 시대도 아니요, 집에 먹을것이 없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았는데? 이다.

그날도 본부에모여"자, 오늘은 아라비안 나이트다 이야기 해줄께 전부다 내 옆으로 온나."

"어느날 바그닷드의 거리에…하는데 호야가 뒷통시럽게 "바그닷도가 뭐꼬" 한다.

"에이참 너도 바그닷드가 페르샤 서울아이가"

2. "신드밧드의 첫번째 항해인데 그자, 하고 이야기하는 나자신이나 듣는아이들 모두가 동경과 환상에 빠져드는것 같았다. 호야라는 아이가 이야기를 듣다가 유난히 그큰눈을 한곳에 못박고 검은눈동자를도리리 굴리며 신드밧드라신드밧드 하고 저혼자 말할때는 나는 그애 얼굴만 봐도 그애가 신드밧드가되어 이상한 나라를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었다.

"뭐 신드밧드?" "그 이름이 또 어렵나. 그러마 퍼떡 우리신는 신발생각 하고 신발밧드, 됐재?"

"응, 신발밧드."

그러나 휴매니티가 물씬풍기는, 수도없이 많은 세계아동문학을 손짓 몸짓해가며 실감나게 해준보람도 없이 판준이, 호야 이 두아이가 커서 자살을하고 말았다.

"못된놈, 어쩜이뇨"

이유는?…

이유는 나만이 그럴듯하게 알지.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 1 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껏, 열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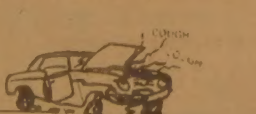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썬그라스
30%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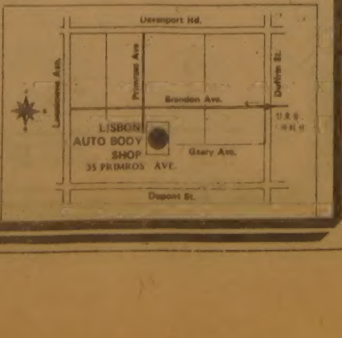
품목: 나나리치, 마비스, 로댕스톡, 포라벨, 크리스찬디올, 프레이보이 등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LISBON AUTO COLLISION INC.
⊙A급 BODY MAN
⊙A급 페인터.
⊙수리중 차대여
⊙사고후 보험처리—책임보증.
⊙TOWING 써비스
⊙철저한 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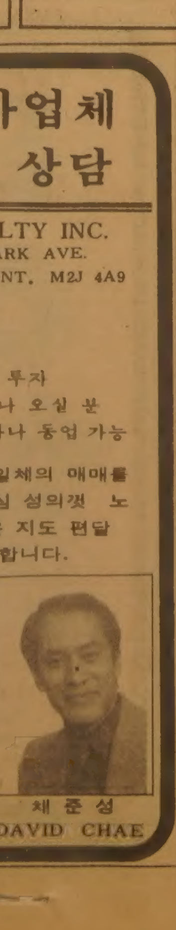
고치고 다듬고

때빼고 광내고
※완전 BODY WORK!



주소 : 35 PRIMROSE AVE. TOR.
전화 : (B)533—8507. 8508
(R)439—6548. 266—8925
이영두. 이건학 형제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주택, 대지, 아파트
◎가게, 상가, 사업체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 분
◎좋은 사업 계획에 투자나 동업 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 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 2년
☆부동산업 종사 7년 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633—7892 (R)
(416) 497—8900 (B)



채준성
(DAVID CHA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原油輸入量 줄인다

景氣침체로 物量 남아돌아
하루 61만배럴、51만배럴로

無煙炭도 百35만톤 내년移越

정부는 경기침체로 물량이 남아도는 원유와 무연탄 수입량을 대폭줄이기로했다。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장기계약으로 하루 61만6천배럴씩 도입케되어있는 원유는 앞으로 10만3천배럴을 줄여 51만3천배럴씩만 들여오도록하고 무연탄은 계약물량 3백78만3천톤중 최소한 1백35만톤의 수입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한편 도입선과 다각적인 교섭을 벌이기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것으로 원유의 경우 현재 하루 소비량은 48만배럴수준이어서 비축분을 포함하더라도 51만3천배럴이면 충분한데다 세계시장에서 원유가남아돌아 시장여건을최대한활용、차제에 계약을 경신하고 국제수지도 개선시키기 위한것이다。

도입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32달러 77센트로 하루 10만3천배럴씩 덜 들여오게되면 한달에 약 1억달러의 외화가 절약되고 7월1일부터 계획대로 수입량을 축소시키게 된다면 연말까지 6억달러 이상 외화절감을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정유회사별로는▲油公이 하루 2백80만배럴에서 2백22만배럴▲湖油1백97만배럴에서 1백77만배럴▲京仁50만배럴에서 38만배럴▲雙龍60만배럴에서 41만배럴로 축소시키고 極東은 9만배럴에서 10만배럴로、기타부분은 20만배럴에서 25만배럴로 늘리도록했다。

◇全대통령이 忠北道政을 보고받기위해 任成宰지사의 안내로 도청청사에 들어서고있다。

"班常會운영 內實化
「意識改革」공직자가 솔선해야"
全대통령、忠北·京畿道순시

【水原=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22일 상·하오忠北및京畿道를 순시하고『모든 공직자가 의식개혁운동에 솔선수범할것과 班常會운영을 보다 內實化해서 世帶主들이 참석하도록 적극 권장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任成宰忠北지사와 廉普鉉京畿지사로부터 道政보고를 들은다음『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식개혁운동에 솔선수범해 스스로 모범적인 정신자세를 갖추어야된다』고 강조하고『투철한 주인의식을 갖추어 능동적으로 일을찾아서하는 적극적인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 이어『班常會는 이웃을 알고 北傀의 불순세력침투에 대처하는데도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전제하고『班常會가 주민들간의 和合을 도모하는 모임이되도록 하는한편 이를통해 각종정보를 전파하고 民意를 파악해서 정책수립에 참고가 되도록하라』고 당부했다。

「都産」관계자등 집중調査
徐南同·金容福·印明鎭목사 추가喚問
檢察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성명서작성및발표경위등을 조사하고있는 검찰은 22일 당초의 조사대상자 9명이외에 선교협의회지도위원 徐南同목사(64·전延世大교수·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장)、선교협의회지도위원 金容福목사(44·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부원장)、印明鎭목사(38·永登浦도시산업선교회총무)등 3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계속하고있다。

刑事처벌여부 오늘決定…朴弘神父 귀가

이로써 검찰의 조사대상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어 났으며 이 가운데 朴弘신부(42·서강大교수)만 22일 자정께 문제의 성명서에 서명했는지 여부와 성명서 기초및 발표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1차대상자에 대한 철야조사를 한결과 성명서작성경위및발표과정에서로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다 정확한 진술을 듣기위해 조사대상자를 확대한것이라고 밝혔는데◆도시산업선교회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먼저배포했다는 일부의 주장과◆추가소환자중에「都産」관계자가 섞여있는사실◆공안부검사외에「都産」문제에 연구가깊은 대검찰연구관金相洙검사와趙俊雄 李鍾燦검사및 都産의관할청인 서울지검 南部지청의 李進緣 金相喜 金東燮검사등 5명을 조사팀에 합류시킨것으로 미루어「都産」측에 대해 조사가 보다 집중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성명서의 작성、배포동기、진위등에 대한 조사는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22일중 보완조사가 끝나는대로 상부의 결심여하에 따라 후속조치가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구속등 법적조치여부는 고위층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법적조치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법률적 검토를 병행하는것이 당연한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일부 성명서 관계자들의 행위가결과적으로 북괴의 주장에 동조한 것처럼 되었다』고 지적、『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단계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것이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검찰은 성명서 관계자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상「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관해 허위사실을 날조、또는 사실을 왜곡전파한것」에 해당된다고 보고있으나 다만 이런행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단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선교협의회간사 千英草씨(28·여)는 아직 출두하지 않고있어 검찰이 계속 소재수사를 펴고있다。

서울지검은 성명서사건조사에 착수한 21일 상오부터 공안부가 있는 청사5층을완전폐쇄、출입이 일체 금지된 가운데 철저한 보안속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층입구에는 평소 수위한명이 배치되어 왔었으나、조사가 시작되면서 공안부입구 철문을 걸어닫고 수위1명을 추가배치、일반인은 얼씬도 못하게 하는등 삼엄한 분위기。

權皓景목사등 8명이 환문된 21일밤 검찰청사는 철야의 불빛만 비추었을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신문을 한 5층 공안검사실 청사주위에는 긴장감마저 나돌았다。

이날 밤에는 소환자수가 늘어남에따라 공안부 검사실만으로는 부족、특수부 검사실 2개를 급히 빌어쓰기도。

또 이날밤늦게 청와대에 정무비서관으로 파견돼있는 朴哲彦검사가 검찰청에 모습을 나타내기도했다。

"「都産」성명草案 반대했다"
朴弘神父 밝혀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성명서 사건과관련、검찰의 소환조사를받고 22일 새벽에 귀가한 朴弘신부(西江大교수)는 이날 상오『검찰에서 성명서가 나오게된경위와 자신의 견해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朴신부는『21일상오8시께 형사2명이와서 서울지검공안부로출두、상오9시부터 밤12시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고『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성명서가 나오게된경위、현시국에 대한견해、해방신학에 대한 설명및 국민화합에대한 의견등을물어 자세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朴신부는 또『都産측이 작성한 성명서 초안이 내용면에서 졸속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우려가 있을것으로 보여 성명서초안에 반대했다』며『池學淳주교、金勝勳신부、朴炯圭목사등도 교회의 성명서가 학생들이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처럼 제작배포되어서는 안된다고 都産측이 작성한 초안을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더이상 擴散말았으면"
池學淳주교 會見

가톨릭原州교구 池學淳주교는 22일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가 발표한「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에 대한 우리의견해」란 성명서와 관련、『현재의 파문이 더커지지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고『이번성명은「反美」가 아니라 대등한 외교적관계를 요구하는것으로 생각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池주교는 이날 기자들과만나 朴炯圭목사등 9명이 검찰에 환문된데 대해『그분들이 걱정된다』면서 이같이말했다。

池주교는『나는 혼란을 원치않으며 새정부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도와주어 일을잘하도록 시간을주어 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池學淳주교

그는 성명서 작성경위에대해『지금무어라고 말할수없으며 정부당국은 성명의 결과에 나타난것만 보지말고 그성명이 나올수있었던 배경을 이해해줘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수습책 마련돼야
劉民韓부총재

劉沃祐 民韓黨부총재는 22일 최근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성명발표사건등에 언급、『확대시킬 필요성도 없고 확대시켜서는 안되는문제였다』면서『더이상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습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F16 2백40臺 飛行중지 조치
美、결함調査…수리착수

【워싱턴21日UPI聯合】美공군은 F16機 2백40대를 결함조사및 수리를 위해 비행을 중지시켰다고 21일 국방성이 발표했다。

국방성대변인은 비행시간 2백시간이 넘은 F16機는일단 날개와 동체연결부분에서 발견된 마모현상을 검사받게 될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검사대상이 미공군보유F16機의 60%정도된다고 말했다。

이、레바논南部 空襲
3개 팔基地맹폭 百여명 死傷

【베이루트21日UPI聯合】이스라엘 전투기들은 9개월간에 걸친 남부 레바논의 휴전을 깨고 21일 레바논의 3개 팔레스타인 기지들을 맹렬히 폭격하여 1백여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시리아 공군기들과 공중전을 벌여 시리아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

이스라엘군 사령부 성명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이스라엘 침투공격과 파리주재 이스라엘 외교관의 피살및 남부 레바논의 지뢰폭발로 이스라엘군 장교2명이 사상한데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전투기들이 남부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게릴라기지들을 폭격했다고 밝히고 요격에나선 시리아공군기 2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성명은 작전에 나선 이스라엘 전투기들이모두 무사히 기지로 귀환했다고 말했다。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장 아라파트는 즉각베이루트남부 파카니의 지하참호에서 PLO최고군사회의를 소집、대응책을 협의했으며 제네바의 비상각의는 유엔안보리와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게 이스라엘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시킬것을 요구했다。

安保理 緊急회의
이機 空襲등토의

【유엔본부21日AP AFP=聯合】유엔안보리는 21일 이스라엘공군기들의 레바논 남부 팔레스타인 게릴라 진지들에대한 대규모 공습문제를 토의하기위해 22일「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유엔본부가 21일 밝혔다。

宗敎界일부「反美」감정
어려운 狀況은 아니다
부시美副統領、한국訪問앞두고 會見

"中共、한반도紛爭不願
한국 防衛力 증강해야"

◇부시 美 副統領

【워싱턴 21日=曺淳煥특파원】조지·부시 美부통령은 21일『최근 한국종교계일부에서 거론된 反美감정에 대해 反美감정은 그렇게 어려운상황이 아니며 과거보다 덜어려운것으로 알고있다。한국민의 對美감정은 오히려 정반대로 좋은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 순방길에 오르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아시아기자들과 45분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수교1백주년을 맞는 韓美양국은 현재 매우 좋은 관계이며 양국관계는 모든것이 잘이루어진것으로본다』고 말했다。

부시부통령은 또 이번 방한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韓美수교1백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며『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가는것도 아니며 한국지도자들에게 어떤 부담을 촉구하기위해서도 아니다』고 밝혔다。

부시부통령은 앞으로 극동지방에서 韓美공동역할에 대해『한국은 미국과 아주 협력을 잘해왔으며 자유세계의 안보등을 위해 한국이 할수있을 만큼 잘해왔다』고말하면서 이번 방한중 한국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무역문제가 협의될것이 틀림없다고말했다。

부시부통령은 부인 바바라여사와 다니엘·머피수석보좌관등 일행27명과함께 오는25일 한국을 처음 방문한다。

부시부통령은 이어『한반도의 군사력을 고려하고 북한의 공격을 위한 군사력증강을 비교해 볼때 한국의 방위태세를 높이는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부시부통령은 그밖에도 한반도안정과 관련、중공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것을 원치않는다고 밝히고『중공이 한반도 평화유지를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기를기대한다』며『중공은 한반도 평화유지를위해 매우유용한역할을할수있다』고말했다。

부시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全斗煥 대통령에게 전달할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社會漫評

기름節約을해도 너무하다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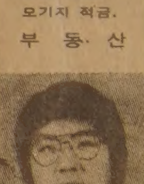
地平線

미국사람 알렉산더·그레이엄·벨(1847~1922)이 전화를 발명한 것은 1876년이다。그로부터 22년、1898년에 우리나라 德壽宮에 전화가 가설됐다。다시 4년이 지난 1902년 서울에 일반전화가 개통됐다。첫 가입자는 13명。개항이 늦었던 것을감안하면、그리큰 時差는 아니다。▼전화는 그동안 長足의 진보를 거듭했다。그중의 한가지、장거리 즉시통화(DDD)는 1951년에 처음 실현됐다。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서울—釜山간에 DDD가 개설됐다。DDD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時差는 20년。그러나 과학·기술면에서 전화의 발명과 德壽宮전화의 時差를 그저 22년이라고 할수가 없었던것과 마찬가지로、DDD의 時差를 가지고 한국의 통신기술이 선진국보다 20년뒤졌다고는 못한다。▼그 일면은 DDD를 개발한 벨硏究所의 규모에서 실감할수가 있다。전 미국 18군데에 연구시설을 가진 벨연구소는 한해 16억달러의 돈을 쓴다。그산하의 인원은 2만2천5백명、박사가 3천명이며、그중에서 7명의 노벨 物理賞 수상자가 배출됐으니 세계 최대·최고의 연구소라는 자랑은 헛된 것이 아니다。▼57년의 역사를 통하여 벨연구소는 1만9천건의 특허를 냈다。휴일을빼고 매일 1건 꼴이다。그중에는 노벨賞을 받은 트랜지스터가 있다。레이저光線을 처음 만들어 냈고 半導體、集積回路개발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다했다。그리하여 벨연구소는 지금 컴퓨터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이렇게 큰얘기를 온나라를 통틀어 한해 5억달러 미만의 과학기술개발비를 쓰는 우리나라에다 빗댈것은 없다。체신부가 전기통신 연구소를 위해 계상한 올예산은 1백10억원(약 1천6백만 달러)。핵심 기술과 기재를 외국에 의지하여 겨우 전자교환時代로 들어서고있는 우리통신사정은 당분간「自立」할 가망이 없다。▼그래도 체신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2개의 통신위성 발사를 구상하고 있다。통신망정비를위해 꼭 있어야할투자다。그러나 그위성에얼마나우리기술、국산기재를실을수가있을까。우리기술이별구실을 못한다면 올림픽위성도 크게 자랑할 것은 못된다。전화사정도 마찬가지。전화보급률이아니라 우리 기술을 따질 때다。▼통신기술은 尖端기술시대의 큰몫을 차지한다。「과학의달」에「체신의 날」(22)이 든것을 우연스럽게 볼것만은 아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전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YOUNG SOOK 'S
보석상
o각종보석
o다이아몬드 품질보장
o최저가격
o뉴 디자인
o보석개조 교환매매
o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뉴서울
유명가수 이숙 우정출연

*기 간 : 4월25일~5월1일까지 : 7일간

캐나다미스코리아대회 특별출연차 토론토를 방문한 한국 유명가수 이숙양은 미인대회 1회만의 출연으로는 교포들에게 아쉬움이 남아, 아래와 같이 뉴·서울에 연장 우정출연 하오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월~토 : 오후6시~새벽1시 일 : 오후6시~오후11시

529 BLOOR ST. W. ☎ : 533-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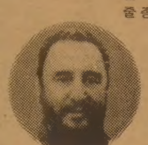
越南 對蘇 蜜月에 冷氣 쿠바

쿠바와 베트남은 소련의 제3세계진출에 중요한 발판역을 해왔다。그런데 최근들어 이두나라와 종주국인 소련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있다。베트남은 스스로 소련에 등을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소련은 對쿠바경제원조가 힘에 부치게되자 이를 줄이고자 하고있는 것이다。소련은 그들과 국경을 접하고있는 폴란드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막대한 군사및 경제원조요청을 받고있다。소련이 쿠바와 베트남을 두 援境國에 비해 지정학적인 우선순위에서 낮게 평가하고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있다。또 소련의 국내적인 경제난, 그리고 브레즈네프의 중병설과 함께 소련의 대외절정에 어떤 변화가 감요되고 있다는 풀이도 있다。

無償원조·交易 대폭줄여

波사태후 戰略가치 줄어 財政難에 對美밀착 가능

쿠바의 立場



◇카스트로대통령

蘇·쿠바관계가 최근들어 식어가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蘇·쿠바 관계는 무엇보다 경제관계에서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있다。

아직도 소련은 쿠바내에 6천명의 소련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하루평균 8백50만달러라는 거금을 들여가며 쿠바를 경제적·군사적으로 부추키고있다。

쿠바는 설탕이외에는 이렇다할 자원이 없어 국가재정을 설탕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가재정이 태부족이어서 소련으로부터의 군사및 경제원조가 없이는 하루도 꾸려나갈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렇기때문에 소련은 아직 기존의 군사및 경제원조를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않으나 대신 쿠바와의 교역을 줄이고 무역보조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경제원조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있다。

지난76년부터 80년사이에 쿠바의 對蘇교역량은 1백73%가 늘었다。

그러나 쿠바의 현행 경제5개년계획기간중의 교역량은 50%밖에 늘지않도록 짜여있다。

원조내용도 크게 바뀌어 쿠바의 무역적자에 대한 有償원조를 늘리는 반면 종래의 無償무역보조금은 줄이고있다。

이는 쿠바의 對蘇무역적자보전을 위한 지원규모가 크게 삭감되는 것을 의미한다。세계적인 경기후퇴로 공산권내의 교역량도 감소하고있다。소련의 군사비 분담압력에도 불구하고 동구공산권국가들은 자국경제를 꾸려가기조차 힘겨운 상황이라 군사비를 분담할 여력이 없다。

소련이 쿠바와의 관계악화를 바라지 않는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소련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적부담이 가중되고있고, 폴란드사태 이후 소련의 정치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고있다。

소련이 쿠바와 폴란드중 하나를 택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될경우 상대적인 우선순위의 문제가 대두될것이다。

쿠바는 소련으로서는 對서방발판이며, 쿠바군대는 아프리카의 앙골라와 이디오피아에서 소련의 대리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쿠바수상 카스트로 또한 비동맹세계에서 소련을 대변하는 영향력있는 인물이다。따라서 소련이 쿠바를 버리리라고 기대할수는 없다。그러나 폴란드는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있어 소련의 안보에 직결되는 존재다。

소련으로서는 미국을 견제하고 中南美로 진출하는 이익과 자국의 안보와는 중요성에서 차이를 느낄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경제원조삭감은 광물생산과 관광산업개발을 통해 산업구조를 다양화하려는 쿠바를 빠뜨릴것이고 국내생산감소는 국민의 불만을증대시킬것이다。

쿠바가 다른 경제협력파트너를 구한다고 할때 석유수출국기구 (OPEC) 국가들이 일차대상이 되겠으나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미국의 對쿠바경제원조는 그여건이 익어가고 있으나 아직 레이건행정부는 쿠바에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있는 강경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쿠바가 구걸의 손을 벌릴때 이에 응할 나라는 미국뿐일 것이라는 서방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럴듯하다。【林鍾乾기자】

◇무기와 원조물자를 실은 소련선박이 베트남의 하이퐁항에 정박하고 있다。소련은 매년 10~20억달러를 베트남에 퍼붓고 있으나 갈증을 풀지못한 베트남은 서방의 도움을 얻기 위해 점차 소련서 멀어지는것 같다。

"援助댓가 꼭 바란다"不滿

駐蘇大使등 黨에서축출 對西歐접근 外交폭넓혀

越南의 立場

◇레·두안서기장

지금까지 소련에 전진기지를 제공하며 충실한 대리인역할을 하던 베트남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對蘇의존도를줄이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걸 절실히 느끼고있다。또 소련역시 東南亞정세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서 베트남을 멀어뜨리고 있다。

베트남의 타치외상이 지난달말 제5차 공산당대회가 끝나자 부리나케 프랑스등 유럽국가를 돌며 원조를 구걸하고 다니는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베트남의 對蘇관계 냉각은 소련과의 관계의 상징이라고할수있는 관리3명이 지난달 5차당대회를 통해 중앙위원회에서 축출됨으로써 뚜렷이 나타났다。80년 6월부터 駐蘇대사를맡았던 구엔·후·마이와 그의 전임자인 구엔·후·키우가 이번 당대회서 중앙위의 의석을 잃었는데 베트남으로서는 소련과 중공주재대사는 양국과의 중요한관계를 감안、비중있는 당중앙위원으로 하는게 상례였다。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駐蘇대사가 다시 중앙위원으로 교체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베트남이 대사의 지위격하로 소련에대한 불만을 암시하려는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우기 베트남이 越·蘇우호협회의장인 수안·투이를 중앙위에서 몰아낸 것은 노골적인 對蘇불만의 신호가 되고 있다。

베트남이 76년도 4차당대회때 현중공주재 대사인 구엔·트롱·민등 親중공관리들을 중앙위에서 축출하고 그후 중공과의 분쟁이 표면화했다는사실을 생각할때 이번사건은 지나칠수 없는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당서기장 레·두안이 당대회서 낸 정치보고서를 보더라도 몇가지 베트남 태도의 변화를 느낄수 있다。

레·두안은 이보고서에서 의례적으로 소련의 경제·군사원조를 찬양했지만 구체적인 원조내용은언급하지않음으로써 그규모가 미미하다는것을 은연중 나타냈다。

또 사회주의승리를 자신하던 레·두안은 사회주의의 추진에 놓인 어려움들을 상세히 지적하고 소련의경험을 배워야한다는 종전의 주장대신 국내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고강조했다。

레·두안은 결국 앞으로의 외교는 국가의 재건과 방위를위해 다방면의 원조를 확보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베트남이 이제 소련에만 매달리지는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했다。

이에앞서 국가계획위의장 구엔·람은 소련이 베트남에 공급한 원유값을 종래의 1.5배 인상한다고 통고해왔고 또 베트남의 제3차5개년계획에 당초 지원키로 약속했던 원조를 40%나 삭감했음을 폭로、소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바 있다。

한편 소련도 베트남의 당대회에 최연소 정치국원인 미하일·고르바체프를 보냄으로써 베트남의 일련의 국내외정책에 불만을 토로했으며 소련과 가장 절친한 프랑스공산당도 하급의 정치국원을 보냈다。

양국관계가 냉각하는 근본적이유는 年10억달러씩을 지원하고 있는 소련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상황에 실증을 느끼고 있는데다 베트남이 자기네 경제개발보다는 우선 라오스、캄보디아의 지배를 노리는데 불쾌감을 느꼈기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베트남인들은 소련이 베트남에 원조를 주고는 꼭 그댓가로 이득을 취하려는데 분개하고 있다。베트남이 차관30억달러를 갚지못하자 50만명의 人力을 끌어다 노동력으로 갚게한 소련의 처사를 그 한예로 들수있다。

베트남관리들은 소련이 떠들어댄「다」지방의 수력발전소건설이 10년이 다 되도록 큰 진척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또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노리는 소련의 시도는 베트남의 불신을 샀고 비공산국의 원조를 모색하는베트남의 노력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兪興根기자】

34弗 기준油價고수

OPEC議長 監視委마치고 밝혀

【빈21日OPECNA=聯合】석유수출국기구 (OPEC) 는 세계적인 석유과잉공급현상에도 불구, 배럴당 34달러의 현OPEC기준유가를 고수할것이라고 OPEC의장인 마네하·사이드·오타이바 아랍 에미 리트연합석유상이 21일 말했다。

오타이바의장은 이날 빈에서 비공개로열린 4개국 OPEC시장감시委회의에 참석한후 기자들에게 이같이말하고 OPEC가 필요할경우 산유량을 추가감축해서라도 34달러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석유과잉공급현상이 절정에 달했으며 OPEC의 시장사정도 개선됐다는 고무적인 조짐들이 보이고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OPEC에 대한 기준유가 인하압력은 「과거의 꿈」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25일 시나이 返還

閣議결정 占領 16년만에

【예루살렘21日UPI·로이터=聯合】이스라엘정부는 21일 지난67년 중동전때 점령했던 시나이반도를 예정대로 오는25일 밤 자정을 기해 이집트에 완전반환키로 최종결정하고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 철수에 반대하는과격파 유태인주민들을 강제철수키도록 군당국에 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정부는 이날 특별각의에서 시나이반도철수를 예정대로 완료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시나이북부 야미트를 근거지로 시나이철수에 항거하는 2~3천여 유태인 주민들을 강제철거시키는 이른바 「붉은 비둘기」작전을 실시하도록 이스라엘軍에 명령했다。

메아리

자연보호는 인류가 지구에 살아 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다른 생물과 共存해야 인간의 생존이 보장된다。

동산길 쓰레기를 치우는것 쯤으로 자연보호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다。세계적인 자연보호운동은 차원 높은 세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다。

첫째 생태학적 과정과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체제유지、둘째는 다양한 유전자의 확보、셋째 지속적인 자원이용과 관리 ─。

자연은 오염된 사람의 손때가 안 닿으면 自生力이 충분하다。하늘을 나는 새는 거두지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길러진다는 말은 곰곰 새겨들어볼 일이다。

지구상의 식물자원은 옛날에 있었던것중 10%가 사라졌다고 한다。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40%가 없어지면 인간도 위험하다는 경고가 내려진다。

인간의 마구잡이 횡포와 공해탓으로 「種의 위기」가 심각하게 부각되었다。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도 수난의 몸살을 자주 앓는다。槐山의 미선나무、제주도의 한란、속리산의 망개나무가 그렇다。조류가운데 들칠면조、노랑부리 저어새、흑두루미、따오기도 마찬가지다。이젠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과부황새

陰城의 「과부황새」소식을 들을때마다 우리는 어떤 죄책감 같은것에 잠긴다。황새는 전멸위기에 놓인 세계적인 희귀조다。국제 자연보호연맹 (IUCN) 은 멸종위기조류 목록 제46번에 올려 놓았다。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등록、보호와 보존을 받게 되어있다。

정다운 한쌍의 황새가 서식하고 있음이 처음 확인된것은 71년4월 ─。그런데 천연기념물로지정된지 사흘만에 수놈은 밀렵꾼의 총에맞아 非命으로 갔다。

이때부터 짝잃은「과부황새」의 처량한 날개는 힘을 잃었고 天壽를 앞두고「代의 단절」이라는 고독의 울음을 우리 귀에 들려 준다 (한국일보22일자11면)。

슬픈 동화를 읽는듯한 감상에 빠져들려는것이 아니다。자연보호에 대한 우리인식을 높이고 그 중요성을 더 높은 단계에서 재확인해 보자는 것이다。「자연은 사람보호、사람은 자연보호」라는 구호를 지나가는 소리로 흘려버린다면 딱한 일이 아닌가…。

英艦隊 戰鬪태세 돌입

24일0時 아르헨機 공격권에

【런던21日路透=聯合】포클랜드군도탈환을 위해 파견된 英國기동함대는 아르헨티나 전투기들의 공격거리안으로 진입하는 24일0시를 기해 완전전투태세에 돌입할것이라고 영국의 국내통신사인 PA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앞서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영국기동함대의 선두함정들이 22일 포클랜드군도의 부속도서중 하나인 사우드조지아島를 공격할 태세를 갖출수있을것이라고 보도했었다。

한편 탱크、전투기、3천여명의 병력을 수송하는 기동함대 제2진이 20일 아침부터 대서양 중부 에센션도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어센션도의 주민들이 전했다。

英國기동함대의 기함인 허머스號에 탑승하고있는 PA통신의 한특파원은 이함대가 21일현재 목표지점으로부터 4천㎞떨어진 지점을 항진중이라고 말하면서 존·우드워드기동함대사령관이 포클랜드군도주변에 공중·해상봉쇄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인용、보도했다。

영국해군대변인은 기동함대의 정확한위치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나 PA통신의 보도에따르면 15일전 영국을 떠난 이함대는 현재 6천9백해리의항해거리중 3분의2를 지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

앞서 데일리 메일지는 미국국방성소식통들의 말을 인용、기동함대의 선두함정들이 22일 포클랜드군도로부터 1천2백90㎞떨어진 부속도시 사우드조지아도를 공격할수있는 해역에 돌입할수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協商중에도 武力사용 가능"

英外相 아르헨에 警告…새代案 마련

【런던21日AP·UPI=聯合】프랜시스·핌영국외상은 21일 포클랜드 위기해결을위해 아르헨티나와의 협상이 진행중인 동안에도 아르헨티나에 대한 무력사용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처英國수상은 이날 소위「戰時內閣」각료들과 아르헨티나평화안에 대한 영국의 대안을 최종의식하고 이를 승인했는데 핌외상은 22일 이같은 영국의 대안을 휴대하고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다。

핌외상은 이날 하원에서 『포클랜드위기의 평화적 해결을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것이나 이와동시에 무력사용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이러한 군사행동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일지라도 배제할수 없다』고말했다。

한편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 (NSC) 도 이날 포클랜드위기를 논의했으며 니콜라스·헨더슨 주미영국대사는 국무성에서 로렌스·이글버거 국무차관과 회담하는등 포클랜드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외교적움직임을 보였다。

英·아르헨機 최초로 접근

【부에노스아이레스21日UPI=聯合】南大西洋으로 출동중인 영英國함대에 승선하고있는 영국언론기관들의 특파원들은 21일 영국함대에서 12마일떨 아르헨티나군 정찰기1대가 어진 지점까지 근접함으로써 英기동함대와 아르헨티나軍이 첫번째로 조우했다고 전했다。

특파원들은 이때 영국군의 해리어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긴급출동、『서로 날개끝이맞닿을정도로 가깝게』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이해리어기는 그러나 발포하지말라는 상부의 엄명때문에 아르헨티나기를 공격하지 않았으며 아르헨티나기는 곧 고도를 높여 사라졌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大型조각품 운반위해 끙끙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의 작중인물 라다메스의 얼굴을 새긴 대형조각품이 英國立 오페라단의 맨체스터 공연장으로 보내지기에 앞서 한 무개트럭에 실리고있다。황금빛의 이 대형 무대장식품은 높이가 11m 폭이 6m에 이르고있는 장대한 것이어서 많은 인원이 동원돼 진땀을 빼고있다。【런던21日UPI電送=聯合】

海外토픽

世界最大 교향악단

★6천1백73명美國歌연주

최근 무려 6천1백73명의 음악가들이 세계최대의 오키스트러를 구성、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한주차장에서 미국가『성조기여 영원하라』를 연주했다。

이들은 한사람의 지휘자밑에서 최대인원이 동시에 연주한 세계기록을 깨기위해이곳에 모였는데 이들의 지휘자인 밀워키·심퍼니·오키스트러의 폴·폴리브닉씨는 당초 기구를 사용、6m상공에서 지휘할 예정이었으나 날씨가 안좋아 몇피트높이의 지휘대에설수밖에없었다고。【밀워키=AP】

브레즈네프死亡說 모스크바에 소문

【모스크바21日AP=聯合】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이 지난 16일 또는 17일 사망했다는소문이 21일 모스크바 시내에 파다하게 나돌았다。

이같은 소문은 외국인들사이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으며 일반소련시민들에게 급속히 퍼지고있다。금년75세의 고령인 브레즈네프는 지난달25일 우즈벡공화국수도 타슈켄트방문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귀환한이래 좀처럼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않고있다。

아기한명에 5천弗

★국제密賣團 臺灣人 검거

어린아기들을 국외로 납치、의붓자녀를 원하는 서유럽인등에게 넘겨준후 건당5천달러 (3백50만원상당) 를 사례비조로 받아온 일단의 대만인들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국제적인 어린이납치조직이 대만내에서 암약중이라는 정보에따라 최근 어린아기3명이 납치되어 이조직에 관여한 한보모의 보호를 받고있는 현장을 급습、관련자 6명을 체포하면서 의붓자식을 원하는유럽인들이 보내온『주문서』수백통과 피납어린이들의사진을열거한인쇄물들을증거물로압수했다。

대만에서 최근 유아들의실종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적지않은 물의가 빚어져 왔는데 경찰은 이 일련의 사건들에 이국제범죄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중。【臺北=AP】

"崔賢은 毒殺"

統一日報 보도

【東京21日=聯合】지난9일성급하게 발표된 북괴 崔賢의 사망은 사실은 독살에 의한 것이라고 東京에서 발간되는 교포일간지 통일일보가 보도했다。

통일일보는 21일 당시 사태를 정확히 알고있으며 북괴 상층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식통이 극비리에 일본에 전한 소식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北傀총격 큰충격

日紙들 대서특필

【東京21日=聯合】21일새벽북괴군에 의한 휴전선 총격사건은 일본신문들이 이날 석간에서 모두1면에 4~5단씩 취급하는등 일본에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시나이撤收 설득작전 이스라엘軍이오는 25일 시나이반도의 이집트반환을 앞두고 시나이반도의 정착촌 야미트에서 철수를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건물옥상으로 올라가고 있다。【야미트 (시나이반도) 21日 AP電送=聯合】

国際뉴스 ABC

다음은 지난18일에 실시된 본사 견습기자모집 常識문제가운데 국제뉴스에 관계된것들을 모아 정답으로 풀이한것입니다。앞으로도 독자여러분의 많은 질의를 기다립니다。【外信部】

「0의 選擇」이란 무엇입니까

유럽核철거위한 레이건의 對蘇제안

▲0의 선택=유럽에서 중거리 핵미사일을 아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소련에 대해 제시한 核감축안。레이건 美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소련이 유럽을 겨냥해서 배치한 SS4、SS5、SS20등의 중거리핵미사일을 철거하면 미국도 퍼싱Ⅱ、크루즈등 신형핵미사일의 유럽배치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외교정책연설을통해 발표했었다。Zero-Option이 원어。이제안은 원래 슈미트 서독수상이 발의했다。

▲Biotechnology=생명工學으로 번역되며 유전자조작、세포융합、조직배양、생물반응기등의 연구개발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코끼리만한돼지』、『암치료약』、복제인간을 만들어낼것으로 기대된다。미국 일본등이 가장 앞서가고 있으며 한국도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A10機=근접공중지원기로 탱크킬러의 별명을갖고 있는 미공군 전폭기。초저비행이 가능하므로 고도의 공중지원능력을 갖추고있고 특히 산악전투지원에 뛰어난성능을 보유하고 있다。아프리카돼지、선더볼트등으로도 불린다。미국 페어차일드社제품으로 74년 생산이 시작됐으며 76년에 실전배치됐고 한국에도 팀스피리트훈련기간에 참가했다。

▲FavoriteSon=대통령지명대회에서 자기출신지대의원들만의 지명을 받은 인기후보자를 두고 부르는 애칭。

▲케이프케네디=미국동남부 플로리다주에있는 미국항공우주국 (NASA)의 우주선 발사기지。미국 우주개발에 공이큰 고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땄다。

그러나 지난80년 주민투표에의해 원래이름 케이프카내베랄로 바뀌었다。인간의 달착륙을 성공시킨 아폴로우주선과 최근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모두 이곳에서발사됐다。

▲OAPEC=아랍 석유수출국기구。범세계적인 석유수출국기구 (OPEC) 와는 별도로 아랍산유국들이 공동이익보호를 위해 만든기구。석유금수가 단행된 73년이후 아랍의 대의를 앞세워 아랍세계를 단결시키는 정치적목적으로 사용되기도했다。리비아、쿠웨이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아랍토후국、이라크、알제리、시리아가 회원국。

▲Iron Woman 또는Iron Lady=영국의 마거리트 대처여수상의 별명。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가 대처수상에게 鐵의女人이란 별명을 붙였다。76년 1월 브레즈네프는 대처수상을『공산주의에 대한 動物的 증오를 품은 여인』이라고했다。

대처수상은 당시 영국의회에서 국방예산삭감을 반대하는 연설을 통해『소련은 버터보다 大砲를 우선시키며영국은 대포보다 버터를우선시키고 있다』고 지적、브레즈네프로부터 이런별명을얻었다。

▲O·A·S=The Organization of America States가 원어로 美洲기구라고 부른다。1948년 4월 창설된 남북미대륙의 지역협력체 산하에 美洲회의、외상고문회의、이사회등의기구를 두고 있고 워싱턴에는 상설중앙사무국이있다。최근 포클랜드사태로 미주국가단결의 상징처럼 거론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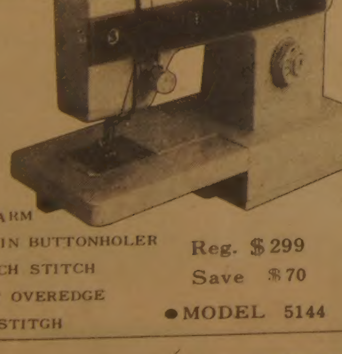
쿠폰을 가져오면 $20 할인

봄맞이대스페샬

쿠폰을 가져오면 $20 할인

★수리및 4 STEP TUNE－UP $29.95 ★무료강습

★헌재봉틀과 교환시 좋은혜택을 드립니다.



●FREE ARM
●BUILT IN BUTTONHOLER
●STRETCH STITCH
●SLANT OVEREDGE
●BLINDSTIT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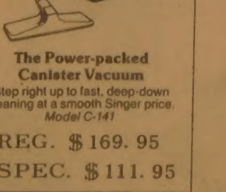
Reg. $299
Save $70
●MODEL 5144

컴퓨터식 재봉틀

Touch-Tronic' 2010 Memory Machine

• Touch-Tronic memory panel and stitch selection • Flip & Sew' panel • Universal pressure system • Twin needle capability •

Reg. $1349
Save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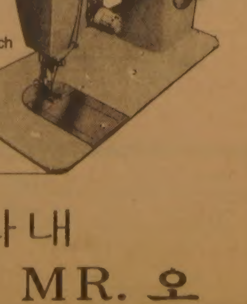
The Power-packed Canister Vacuum
Step right up to fast, deep-down cleaning at a smooth Singer price. Model C-141

REG. $169.95
SPEC. $111.95

Fashion Mate' Zig-Zag Machine

ONLY $128

• Front drop-in bobbin • Snap-on presser feet • Sews elastic and stretch fabrics • Three needle positions • Model 247



*Trademark of THE SINGER COMPANY
Authorized user Singer Company of Canada Ltd

SINGER

SINGER SQUARE－ONE 쇼핑센타내
MISSISSAUGA (416) 277-0341 MR. 오

農家부채 계속 늘어 한집에 437,000원꼴

農水産部 표본조사分析… 81년말 現在

豊作불구 80年比 29% 지난 10年사이 43배로

지난81년말현재 전국농가의 호당 평균부채가 전년인 80년보다 29%나 늘어난 43만7천원인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부채증가율은 연3년간 흉년을 맞았던 78, 79, 80년도의36·2%, 55·9%, 95·5%보다 낮은수준이지만 지난해 쌀수확량이 평년작이상이었던점을 생각하면 정반대현상을 나타낸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22일 농수산부에따르면 81년말 현재의 전국농가호당평균부채(차입금) 43만7천원은 농협및 공공기관에서의차입금이 전체의 49·0%인 21만7천원, 사채가 21만원으로 전체의 48·0%, 기타부채가 1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있다.

◇연도별농가호당부채 (단위 원)

연도	총액	증가율 %	농협및 공공기관	사채	기타
71	10,282	△35·4	2,671	6,750	861
72	13,914	35·3	3,855	9,339	720
73	13,766	△1·1	3,192	9,772	802
74	26,091	89·5	5,378	19,558	1,155
75	33,434	28·1	9,673	21,899	1,862
76	37,421	11·9	14,161	21,692	1,568
77	81,564	118·0	23,557	56,251	1,756
78	111,061	36·2	53,151	55,781	2,129
79	173,154	55·9	86,298	82,015	4,841
80	338,465	95·5	164,663	165,877	7,925
81	437,000	29·1	217,000	210,000	10,000

차입기관별 부채규모는 농협및 공공기관이 전년도(80년)의 16만4천6백원보다 31·8%, 사채차입규모는 전년도의 16만5천8백70원보다 26·6%, 기타는 전년도의 7천9백25원보다 26·2%가 각각 증가했다.

그동안의 농가호당 부채규모는 지난 71년말 1만2백82원, 75년 3만3천4백30원, 76년 3만7천4백21원, 77년 8만1천5백64원, 78년 11만1천61원, 79년 17만3천1백54원 등으로 농가호당 평균부채규모가 지난 71년이후 10년사이 43배가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호당부채는 지난 73년에 전년대비 1·1%(72년의 1만3천9백14원에서 1만3천7백66원)가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11·9~1백18%씩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81년중 농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난것은 지난77년이후 연속 3년동안의 흉년에의한부채를 지난해 한꺼번에 상환한경우가 많았고 추곡수매가격의 인상률이 예년의 20%수준보다 크게 낮은14%에 머무른데다가 쌀값이 생산비수준으로 떨어져 결과적으로 농가수입감소를 가져왔기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이같은 내용은 농수산부가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전국농가중 표본추출한 3천4백호를 대상으로한 조사분석결과 나타났다.

수출增加率 마이너스

80년4월이후처음 신용장來到額도 20·5%줄어

올들어 부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수출이 이달들어 더욱 침체, 그증가율면에서 前年동기대비 마이너스증가율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수출신용장(LC) 내도액은 지난해 9월이후 계속 마이너스증가율을 나타내고있지만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한것은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앞으로의 수출전망을 어둡게하고 있을뿐아니라 경기부양에도 적잖은 장애요인이 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22일 상공부가 집계한 수출실적을 보면 4월들어 20일현재의 수출실적은 8억3천1백74만2천달러로 前年동기의 8억3천6백75만5천달러에 비해 0·6%가 감소, 지난80년4월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19일까지는 1·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1·4분기(1~3월)중에는 6·9%가 늘어났었다.

이와함께 신용장 내도액도 이달들어 9억2천2백67만달러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0·5%가 감소, 앞으로의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고있다.

外換 수수료 引下

오늘부터 전신환賣買差 0·5%로

금융단은 무역업체들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외국환수수료를 23일부터 인하키로했다.

22일 열린 금융기관대표자회의는 전신환 賣買率差를현행 0·6%에서 0·5%로 인하하고 아울러 換價料징수기간도 현행 15일에서 13일로단축, 23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번 조치로 무역업체들은 연간 6백여억원정도의 금융비용부담을 덜게됐다.

전신환매매율차란 은행이 무역업체들로부터 사고 파는 전신환의 매도율과 매입률의 차이를 말하는것으로 이율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무역업체들의 수수료부담이 많아지게된다.

은행들이 매일매일 고시하는 대고객전신환매매율은 지금까지 韓銀集中基準율에 상하 0·3%(率差0·6%)씩 가감해서 적용해왔으나 이번조치로 상하가감폭이 0·25%(率差0·5%)로 축소됐다.

株價 반전

35개종목 上終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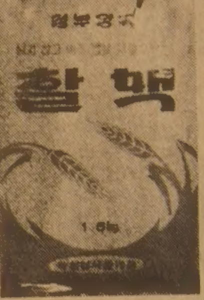
주가가 급등세로 반전했다. 22일 거래소에따르면 3월초이래 계속 떨어지던 주가는 이날급등세로돌아서 35개상종가를 포함 1백25개종목이 오르고 하종가 2개를포함, 46개종목이 내렸으며 56개종목은 보합세를 보였다.

쪽보리 개발 서울에 放出

보리쌀값과 同一

농수산부는 22일 영양가가 높고 가공비가 낮은 쪽보리(割麥)를 새로 개발, 서울지역에 오는26일부터 보리쌀과 같은 값으로 시험방출해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공급키로했다.

쪽보리는 보리를 도정하면서 일반보리의 68%(收率)보다 많은 72%로 도정하는 대신 보리의 한가운데를 쪼개 검은선부분을 없애 쌀과 비슷한 모양으로 가공한것으로 영양가 손실이 적고 밥을 지을때 색깔이 희며 수분흡수가 높아 일반 보리쌀과 같이 한번 삶아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수있다.



◇오는26일부터 서울지역에 시험방출되는 1·5kg들이 할맥(쪽보리)포장. 영양가가 높고 밥짓기가 쉽다.

韓·EC섬유쿼터 오늘 서울에서協商

내년부터 적용될 EC(유럽공동체)지역에대한 섬유류수출의 기본쿼터량및 연간증가율을 결정키위한 제1차협상이 23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龍仁「湖巖미술관」개관

23일부터 한달간 일반무료공개

湖巖미술관 개관식이 李光杓문공부장관, 李秉喆三星그룹회장등 각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22일상오11시 龍仁자연농원에서열렸다.

三星미술문화재단(이사장 李秉喆三星회장)이 경기도龍仁 자연농원내에 총 19억원을 들여 건립한 湖巖미술관은 옥외조각공원을겸한 1만3천평의 부지위에 지상 2층, 지하1층의 연건평 1천2백76평 규모의 민간미술관으로 76년7월에 착공, 지난78년5월완공 됐다. 4개의 전시실로 나뉘어 전시된 중요문화재및 현대미술품은 국보7점, 보물 4점을 비롯 모두 1천1백여점. 소장미술품은 앞으로교체전시할방침이다.

李秉喆회장은 이날 개관사에서『이곳에 전시된 문화재와 미술품들은 그하나하나의 작품속에 깊숙이 간직돼있는 예술성과 역사의 향기에의해 선택된것』이라고 밝히고『이 미술관이 앞으로 우리국민에게 문화창조의 꿈을키워주는 산실로서 민족문화의 산교육장이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湖巖미술관은 23일부터 1개월간 일반에 무료로공개한 후 현충일후로 유료공개(어른2백원·어린이1백원)한다.

尹福姬 복음聖歌集 출반

가수 尹福姬가 자신이 작사·작곡한 복음성가집을 출반해 화제. 성경귀절을 인용한「그럼에도 불구하고」「사랑의 나무」「알의 밀알」「돼올어」등 자작곡과 기존찬송가를 한데묶은것으로 인조 오키스트러가 연주를 맡아 종래의 가스펠·송과는 다른 장중한 느낌을 준다. 福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섬득「새롭게 하소서」「수퍼스타 예수그리스도」 종교영화「죽으면 살리라」등에 출연했다.

◇尹福姬

「趙容弼특선」출반

덜알려진것들 모아

가수 趙容弼이 그동안 발표한 노래가운데 대중에게 알려지지않은 것들을 묶어「趙容弼특선」으로 출반했다. 머릿곡「사랑사랑 사랑은」「새들의 합창」(작곡 문영일) 등과 자작곡「생각이 나네」「옛일」「흘린면 그날」「모두 몰라요」등이 수록됐다.

한국일보 詩壇

서울 아이

李錫根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새들이며 꽃들이며가
요술나라의 친구들만큼이나 멀리 있는
것이라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야
봄의 아지랭이도
여름 바람도
적요한 가을 저물밤 이야기도
들 건너에서만 서성이다가 저희끼리
쑥덕이다가
오던 길로 가나니
얌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얌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민간主導型 경제전환 支援"

羅財務, 金融기관任員에당부

羅雄培재무부장관은 22일 하오 정부의 경제운용방식이 민간주도형 경제로 전환중이라고 전제, 금융인 스스로가 새로운 금융질서확립에 앞장서서 금융면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지원하고 실질적인 민영화와 자율화를이룩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羅장관은 이날 외환은행회의실에서 금융기관 임원전원이 참석한가운데『정의사회구현을위한 의식개혁및 새시대금융인의 역할과사명』이라는 주제의연설을통해 이같이 말하고 금융기관도 하나의기업이라는 관념을 정착시키고 금융기관우위의 또는 편의적 입장에서 형성된 타성을버리고 서비스정신을 함양하고 고객의입장을 중시하는 호혜적관계의 형성에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羅장관은또 금융인은 새로운 금융기법의개발에 전력투구하여 실물경제를 선도하는 입장에서야하며 특히 중소기업의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함과 아울러 대출시에는 사업성위주의 심사분석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輸入先 바꾸겠다"

駐韓바이어15%

우리나라와 거래하고있는 바이어들의15·2%가 수입선을 다른 나라로 전환중에 있으며 그이유는 비싼가격과 나쁜 신용도때문인것으로 나타났다.

22일 貿協이 국내에 주재하고있는 2백41개 바이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현황에 따르면 이들이 수입선을 전환한 경우 대상국가는 대만(41·2%) 홍콩(15·8%) 中共(15·8%) 등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어들중 29%는 앞으로 1~2년내에 수입선을 다른나라로 바꿀 의사가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수입선을 바꾸려는 이유는 67·1%가 비싼 가격을, 16%는 나쁜 신용도를지적했고 품질불량 때문이라고 응답한바이어는8·2%였다.

한편 이들이 우리상품을 처음알게된 이유로는 세일즈활동때문이 20·1%에 불과한 반면 54·2%가 자신들의 필요에의해 알게됐으며 광고(8·7%) 박람회및 전시회(2·9%) 등을 통해 우리상품과만난것은극히적었다.

經濟短信

▲농협·축협, 의식개혁추진 결의대회=농협중앙회(회장 李得龍)와 축협중앙회(회장 金一魯)는 22일상오 재경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식개혁추진결의대회를 개최.

▲가계수표에 발행지 미리기재=금융단은22일 가계종합예금주에게 가계수표책을 교부할때 발행지란에 거래점포소재지 행정구역을 미리기재, 지불거절등 최근法院판결로 야기됐던말썽의 소지를 없애도록했다.

▲商議, 부총리초청 조찬간담회=大韓商議는 24일 상오8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金埈成부총리를 초청, 당면 경제문제에 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할 계획.

▲中央阿외상, 경제기획원예방=방한중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장루이·제르빌·양발타외상일행이 22일상오 경제기획원을방문, 河東善차관보로부터한국의 5차5개년계획에관해 브리핑을받았다.

알몸의 皇帝 맥아더

유엔군司令官서 해임…"政治的 살인"

美國 이런일·저런일 ⑲

51년 4월11일 東京의하오 2시는 워싱턴의 새벽 0시였다. 東京美대사관저를 숙소로 삼고있던 유엔군,극동미군및 日本주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원수는 세찬 봄비 소리를 들으며 부인과함께 본국에서 온 2명의 손님과 오찬을 들고있었다.

이때 워싱턴 백악관의 공보관 쇼트는 특별기자 회견을 요청,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달려온 일단의 기자앞에서 성명을 낭독했다.

『아주 유감스런 일이기는하지만 나는(트루먼 대통령) 미국 헌법이 부과한 명확한 여러 책임과 유엔에 의해 주어진 책임으로미뤄 극동에서의 유엔군 사령관을 경질해야하겠다고 결정했다. 나는 맥아더원수의 지위를 해임하고 후임으로 매튜·B·리지웨이 중장을 임명하였다』

이보다 1시간 30여분이 늦은 시간에 맥아더의 부관 하프 대령은 식사중인 장군에게 이소식을 전할수없어 부인에게「지급」이라고 붉은색 스탬프가 찍힌 다갈색 봉투를 건넸다.

부인이 건네준 해임명령서 봉투를 뜯어본 장군은 등뒤에 손을 대고 있는 부인을향해 조용히 말했다.

『지니!마침내 우리는 고국에 돌아가게 됐어』

후에 맥아더는 그의 회고록에서『이건 정치적살인』이라고 분노했지만 52년간미국을 위해 싸운 그는『사정도없고 해명의기회도 없었으며 과거에 대한 배려도 없인』거친 방법으로 해임됐다.

"트루먼 指示보다 憲法존중"

後任리지웨이는 經營者的장군

그후 21년。한국일보 외신면에 실리는「오늘의 小史」난에만 이사건은「51년 맥아더해임, 후임에 리지웨이 중장」이라고 적고있을뿐 다른 신문들은 이 몇자마저 게재 않고있다.

『老兵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뿐이다』는 그의명언처럼 한국의현대사와 밀접한 관계가있는 그의 행적은 한국에서는 사라지고 있다.

최근의 책에 정치작가라고 칭하는 로버트·스미드의「한국에서의 맥아더」를 뉴욕의 사이먼·서스터社가 올해 출판했다.

스미드는 이 책의 부제로 단「알몸의 황제」가 시사하는것처럼 맥아더 개인의 전부를 급진자유주의자적 입장에서 벗기고 있다.

스미드의 논조는 맥아더는 作戰의 명수도 아니요, 위대한 천재도 아니며 특히 한국전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늙고 고집센「자칭 황제」였다는 비난조다.

스미드가 지적하는 이런 논조는 맥아더를 미국인이 숭상하는 영웅주의에 입각해 전기를 쓴 윌리엄·맨체스터의「맥아더―아메리카 시저」와는 궤를 달리하고있다.

이책에서 그는 책을 쓴 이유를 어느귀절에서도 밝히지 않고있다. 다만 이책을 쓰는데 과거 맥아더와 함께 혹은 후에 한국전을 지휘한 리지웨이、밴·플리트、클라크、마이켈리스 전유엔군사령관등의 증언을 여러차례 들었음을 밝히고 있다。특히리지웨이대장은맥아더장군이 51년 춘계공세를 펴기를, 꺼려하면서 자신이 立案한 작전을 유엔군의 작전처럼 탈취해갔다고 섭섭해 하고있다.

지난해 陸士가 개최한 국방학회의에 참석했던 시카고大學의 모리스·자노위치교수(「직업군인」「社會 政治的인 면모」의 著者)는 스미드에게 증언한 맥아더 휘하 장군들의 비판은 가능한것으로내다봤었다.

자노위치교수는 미국의 장군은 크게 대별해「규정을 철저히 따르는 장군」과「경영자적 장군」으로 나뉘고, 이 두 그룹이 전쟁이 났을때 참모、지휘관을 교체 해가며 활약하다가「政治的-軍事的」장군이된다고분석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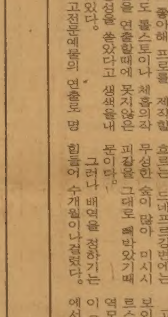
일선 지휘관만을 거쳐 정치적 장군이 된、어떤면에서 워싱턴정계에서 疎外된 장군들이 맥아더、패튼、클라크、밴·플리트등의 장군 그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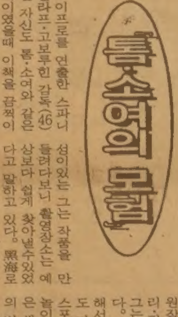
또하나의 큰 軍脈이 중산층 이하 출신의 참모、보좌관、기획등의 非규정직을 수행해온 전통적인 軍門집안과는 疎外된 또하나의 그룹。이그룹이 마셜 원수를 정점으로 아이젠하워、리지웨이、테일러、개빈(2차대전때발지전투의 82공수사단장)、마이켈리스、헤이그현국무장관으로 연결된다.

자노위치 교수는 특히 리지웨이 대장에 대해 마셜軍脈의「경영자적 장군」의 대표적 예로 들고 있다.

그는 로마시에의 공수부대투하를 반대해 오히려 용감한 장군의 칭호를 얻었다. 무리한 작전보다는 싸우지 않는게 낫다는 주장이 계속 이부하들에게오히려「용감한 장군」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는 낙하 멜빵에 수류탄을 달고 있는 복장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수류탄은 한쪽 멜빵엔 낙하산이 와 핀이 달려있다. 용기와 자제를 겸비했다는 상징이다.


◇제2대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장군。낙하산 멜빵에 단 수류탄복장은 유명하다.



◇최근에 출판된「한국에서의 맥아더」표지.

구독신청은 533-2361

蘇에 상륙 선풍적 人氣

톰·소여의 모험

3시간짜리 3部作 TV드라마化

숲 우거진 드네프르江邊을 무대로

○…미시시피강에서 뛰놀던 미국의 개구장이 톰·소여가 소련의 드네프르강에 나타났다.

○…소련은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소년소설인 마크·트웨인작「톰·소여의 모험」을 3시간짜리 3부작의 TV드라마로 제작했다. 이것은 美蘇간의 해빙무드가 식어가고 문화교류도 시들해진 싯점에 있은 일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소련에서 TV드라마로 만들어진「톰·소여의모험」과 그 주역。허클베리(上)와 톰·소여.

이프로를 연출한 스타니슬라프·고보루힌 감독(46)은 자신도 톰·소여와 같은 나이였을때 이책을 끔찍이도 좋아해 프로를 제작할때도 톨스토이나 체홉의작품을 연출할때에 못지않은 정성을 쏟았다고 생색을내고있다.

고전문예물의 연출로 명성이있는 그는 작품을 만들려다보니 촬영장소는 예상보다 쉽게 찾아낼수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黑海로 흐르는 드네프르강변에는 무성한 숲이 많아 미시시피강을 그대로 빼박았기때문이다.

그러나 배역을 정하기는 힘들어 수개월이나걸렸다.

원작속에서의 톰과 허클베리·핀은 10대초반이었지만 그는 나이를 더 낮춰야했다.『요즘 아이들은 조숙해서 12살이나 14살쯤만돼도 디스코를 추거나 다른 스포츠를 즐기려들지 해적놀이나 인디언놀이 같은것은 생각도않는다』는게 그의 변이다.

고보루힌감독이 소련의 보이스카웃 신문인 피오네르스카야·프라우다지에 배역모집을 발표하자 수천명이 응모해왔다. 그는 이중에서 10살짜리의 무명소년

配役선택에 苦悶 10代 수천명 應募

黑人노예「짐」은 이디오피아 留學生

미시시피江 蒸汽船 꾸미고 星條旗 걸어

을「게켈베리」(허클베리의 소련식발음) 역으로 뽑았다. 보다 세련된 연기를 요하는 톰·소여역에는 9살짜리 기성아역 배우 페데야·스투코프군을뽑았다.

흑인노예「짐」의 배역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었다。고보루힌은 각 대학을 돌아다니며 앙골라、모잠비크、이디오피아 등에서온 흑인학생들중에서 마침내 이디오피아 출신유학생 베하일루·멩게샤(루룸바대학)가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멩게샤는 출연을 앞두고 난관에 부딪쳤다. 노예역할을 하는것은 민족의 수치라는 친구들의 만류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만류를 뿌리치고 제작을 마치고 지금은 귀국해있다.

고보루힌은 멩게샤가 연기도 좋았지만 그배역을 수락한 용기는 더욱 가상했다고 지금도 칭찬하고있다.

고보루힌은 전제작과정을 통해 원작에 충실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소설에서 허클베리가 한밤중 묘지에 가자고 톰을 깨울때 톰이 아래쪽 창틀을 위로 끌어올리는 대목이나온다. 소련에는 이런 창틀이 없어 고보루힌은 19세기의 미국건축에 관한 책을 보고 연구하여 목수들에게 미국식창문을 짓도록지시했다.

미시시피강의 증기선도 있을리없어 목수들을동원, 모형을 만들었다. 바지선위에 하얀 난간을 걸치고 두개의 검은 굴뚝을 세워 연기를 뿜게한다음 선미에는 성조기를 걸었다.

이프로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은 한마디로 선풍적이었다. 미샤라는 모스크바의 여고생(15)은『그 작품은 너무나 실감이나서 좋았다』고 말했다. 외국인 학생들도 매료된건 마찬가지. 모스크바의 앵글로아메리칸·스쿨에 재학중인 14세의 미국인 남학생은『그것이 소련에서 제작되었다니 도저히 믿을수 없다』고 말했다. 【타임誌】

세계적으로우수한 가와이피아노및 전자올갠 ★★★★

10% —30% 할인

봄맞이재고정리대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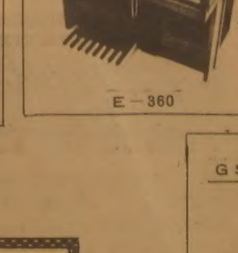
기간 : 4월17일부터4월30일

○ NEW, USED, DEMO,

교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보답코저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아래품목을 특별할인판매 합니다.

전자올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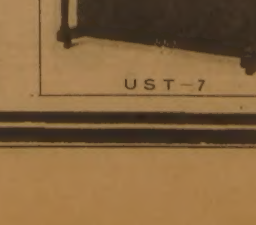
E—620


E—360

그랜드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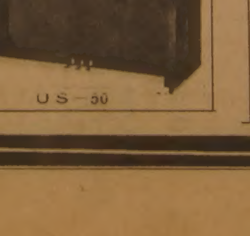
KG—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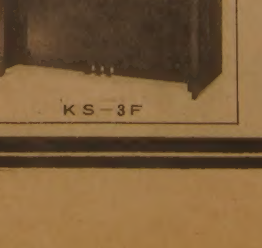
GS—30


UST—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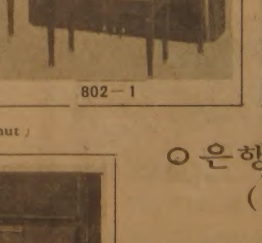
CE—7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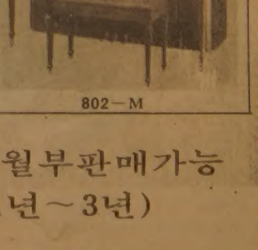
(Open Walnut)


US—50


KS—3F

UPRIGHT 피아노


802—1


802—M

○은행월부판매가능 (1년~3년)

MARKHAM PLACE
2900Steeles Ave. E.
Thornhill
881—8211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883—9407

宗教話題

두고온 120만동포에게 福音을
「北間島 교포선교회」발족

北間島출신의 목회자·신자들이 고향동포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기위해 「北間島교포선교회」라는 뜻있는 모임을 만들었다. 기독교회관에서 지난12일열린 결성준비 모임에는北間島가 고향인 목회자·신자대표들이참석, 信教자유의 물결이 일고있는 그곳 1백20만형제들을위해 무슨일을 할수있는가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북간도교포선교회의 고문으로 추대된 85고령의 文在麟목사는 龍井중앙교회에서, 회장으로 뽑힌 李權燦목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는 龍井東山교회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徐錦燦목사(서소문교회원로목사)는 延吉교회에서 각각 시무했던 분들이다。

◇북간도교포를 위한 기도회의 참석자들。만주땅에 하루빨리 복음전파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이들의 마음은 어느실향민에 못지않다。

中共 당국의 완화로 教會 되찾아
"가만히 앉아있을수없다…뭔가돕자"

日帝에 나라를 빼앗긴뒤 亡國의 설움에 겨워서, 가난과 부패에 분통이 터져서 수많은 憂國志士들이 힘과 뜻을 모았던 땅。그 北間島 땅의 우리동포들은 어디에 정착하건 학교와 교회를 세워 공부하고 예배했던 것이 공통된 현상이었다。

그 꿈에도 잊지 못할 北間島의 교회들은 中共정부에 의해 오랫동안 다른 건물로 쓰여졌다。그러나 뒤늦게 中共당국이「더럽혀서 미안하니 수리해 주겠다」는 통고를 해옴에따라 숨었던 교인들이 30~40명씩 다시 교회로 모여들었다。

이 소식이 처음 날아든 것은 작년 여름。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학자 또는 재일동포 목회자 가운데 中共을 방문하고 온 분들로부터 그곳 소식을 들을때마다「가만히 앉아있을수만 없다」는 이구동성이 솟아져 나왔다。

작년 10월1일 中共을다녀온 한 在日동포의시찰보고회를 겸해 北間島교포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南京연합신학교가 작년이맘때 첫개교하여 학생을 모집하자 1만여명이 지원했으나 합격자는 50명에 불과했다든가, 한국인 교회가 다시 예배를볼수있게되자 수백명의 교인들이 모이긴했으나 막상 나이많은 몇사람외에는 예배절차를 몰랐다든가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한 신자가 받은 편지에는 奉天西塔교회의경우 만 18세이상에 신교의 자유가 주어진 후로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있고 72세인 한 長老는 새벽 80리길을걸어 예배인도를 하고있다는 내용이 써있었다。

극동방송을 듣고 在滿동포들의 편지가 많이 날라오고 있지만 大連에서 대학교수였던 K씨의 사연은 애처롭기 짝이없다。한국학생들과 찬송가를 부르다 좇겨난 몸이 되어 내몽고에 유배된 그는 중공돈으로 1천5백원 (우리 돈으로는 70만원) 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돈을 낼길이없어 묶여있다는 것이다。

K씨는 유배지에서도 높은 학식을 인정받아 南稻田대학에 시간강사로출강, 10원의 월급을 받아 벌금액을 공제하고있는데 앞으로 15년은 걸려야 모두 내게될 딱한 형편이라고。

北間島교포 선교를 같이 의논하기위해 나온 인사들은 吳瀅基(全州새한교회목사) 張允哲(信一高교장) 柳順韓(부산청십자부회장) 全澤院(성남교회장로) 尹一柱(成大교수) 金楨宇(시인) 崔文煥(경기도 草月선린촌교회목사) 吳鳳瑞(영등포 성은교회 목사) 安哲浩(서울大교수) 金泰均(京畿大교수) 洪性傑(平澤교장) 金基佳씨(〃)등이다。

회원들은 북간도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어떻게해야 그들을 도울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다。

흔히 對中共선교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있으나 종교라는 개념이없는 땅에서는 조심스럽게 선교전략을 펼쳐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있다。

그들은 3自운동이라고 해서 외부도움을 받는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을 보내는것보다는 그곳에 자유여행이되는 사람들을 측면에서 돕는 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선교회 총무를 맡고있는 吳瀅範장로는 요즘 TV에 나오는 「오똑이인생」,「새아씨」등의 연속물이 延吉 龍井땅이 무대이므로 기도하듯 시청하고있다면서 북간도에 복음전파가 더욱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빈다고 말했다。【李忠雨기자】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㉝

1935년도 저물어갔다。크리스머스때 긴자에서 만난 오가다군의 인상이 좀처럼 가시지않는다。라틴가 뒷골목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고학하는 파리의 학생들이 새삼스럽게 생각난다。세계각국에서 모여든 대학생들의 활기에찬 면학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예과1학년때 본 프랑스영화를 값진 교훈으로 되씹어본다。오가다군의 면학하는 자세에 증오하던 일본인의 다른 일면을 느낀것이다。일본인을 더 알아야하고 일본영화에도 일층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섣달그믐날,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택시를 몰고 센주(千住)아라가와방면에서 동경시내로 향하고 있을때다。일본옷차림에 게다를 신고, 돈비 (옷위에걸쳐입는외투)를 걸쳐입은중절모노인이손을들었다。

흐뭇했던 日人法官

年末거리서 태운 老乘客
내留學生신분 알고 격려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그는 차를 타면서 와세다로 가자고했다。동경시내는 연말경계가 삼엄했고 승객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불심검문을 당하던 때다。그가 묻기에 일본대학법문학부 법률학과 3학년에재학중이라했다。내가 반도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꽤감동적인 어조로 훌륭한 학생이라고 찬사를 아끼지않았다。차가다까다노바바에 와세다로 꼬부라질무렵, 파출소앞에서 순사가 차를 세웠다。다짜고짜 면허증을 보자는것이다。면허증을 받아들고 힐끗 보더니『기마 조센진다나』(너 조선놈이로구나)하고 내뱉는다。일본인 특유의 차별대우어조다。내가슴에선 금방 불덩이같은것이 올라왔다。『조선사람이 어쨌다는 거요?』나는 나직하면서도불쾌하다는듯대꾸했다。순사는 무슨말이 많으냐면서 차에서 내리라는것이다。『영감 어디까지가나』손님에게도 반말이다。

『보따리를 들고 파출소안으로 들어와!』연말경계를 집행하는 순사의 권세는 대단하다。그러나 노인은 몸직이지도 않는다。아사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면서『보따리를 보고 싶으면 가져다 봐도좋다。하나 본뒤의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한다』약간 엄숙한어조다。『건방진 늙은이, 나오라면 나와!』순사는 문을 열고 호령을 한다。결국 그와 나는 파출소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파출소주임이 순찰에서 돌아왔다。순사들이 경례를 붙이자 보따리를 보고 뭐냐고 물었다。노인이 주임을 보고『군이 이곳 책임잔가』하고묻자 약간 당황한 빛으로 수긍했다。『이보따리를 보자고하는데, 보고나서너희들이연대책임을 지고 대심원으로 가져오라』노인의 말에는 위엄이 들어있었다。그는 대심원판사였다。

그제야 일제히 경례를 붙이고 보따리를 차안으로 급히 옮긴다。『와세다대학에서 너희들 경찰관훈련을 위해 몇번 강연도 했다。주임은 내 얼굴을 기억할텐데…。연말경계를 철저히 하는것은 좋다。그러나 운전사가 조선사람이라서 뭐가 나쁜가? 너희들이 조선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일본인이 갖고있는 가장 못된 버릇이다。이사람은 존경할만한 법학도다。부끄럽지도 않은가。자, 김군 가세!』

우리들은 다시 차에 올랐다。일본사람의 훌륭한 일면을 또한번 체험한 셈이다。고맙고 유쾌했다。내가 해야할 말을 위엄있게 대변한 것이다。

어느새 차는 쓰루마끼쬬(鶴卷町)까지 왔다。『김군, 열심히 공부하게。자네같은 학생을 만나 반갑네。오늘 나는 노모와같이 섣달그믐날을 보낼생각으로 와세다에 온걸세。자 신년을 잘 맞이하도록』

그는5원짜리 지폐 한장을 내손에 쥐어주면서 격려해준다。대심원 법관이 송사리법학도를 귀엽게 본 것이다。성명을 물었으나 끝내 밝히지않고 손을 들어 인사를 보내고는 현관안으로 들어갔다。

오가다군과 이노인이 나를 몹시 흥분하게 했고, 흐뭇하게 해준 단 두사람의 일본인이다。오랜 세월이 흘러간 오늘 아련하게 그 사람들의 인정이 그리워진다。

◇졸업을 앞두고 東京형사지방재판소를 견학한 日本大법문학부 법률학과 학생들。㊧로부터 4번째가 필자。

도중 検問 걸려 判事신분 드러나
경찰의 韓人差別 꾸짖고 돈 더줘

나의告白　安泳

영세때 치마자락에聖號가
"내탓이다"아직 실천 못해

내가 영세를 받고 다시 태어난것은 28년전일이다。그때놀라운체험을했기에지금도 그일을 뚜렷이 기억하고있다。물로 씻는 예절을 마치고 신부님의 첫 강론을 듣다가였다。눈물이 핑 돌아 고개를 떨구고 그걸 찍어내는데, 아니 이게 웬일? 내 새하얀 치마자락에 십자 성호가 새겨져 눈부신 빛을 뿜고 있지 않는가。눈을 부벼가며 보고 또 보았다。틀림없는 십자가였다。영혼의 淨化가 절정에 이른 순간은 그런 신비도 가능한 것인가。내입에선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왔다。천주님。영원토록 그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 뒤 꾸준히 성당에 나가고 있지만 더 이상 그런 순간을 체험하지못해 안타깝다。

수녀님께 들었던 얘기한토막。

어느집에 할머니 어머니 딸 3대가 살고 있었다。어느날 어머니가 다림질을 하려고 물 한 사발을 떠다 놓고는 부엌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그때 마침 여학생인 딸이 들어왔다。책가방이 무거워 간신히 끌고 오다가, 아이쿠! 그만 물그릇을 차 버렸다。금새 물바다가 되어 곁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시던할머니의 일감까지젖었다。부엌에서 어머니가 뛰어들어왔다。

『아유。이를 어째。죄송해요。어머님, 괜히 물부터 떠다놓가지구。얘야, 양말 젖었지? 벗어라』

『아니다。내 탓이지。그걸 한쪽으로 좀치워 줄걸 미련스럽게 바느질만 하고 있었지 뭐냐』할머니의 말씀。

『아녜요 제 탓이죠。좀 얌전히 들어왔으면 될걸。죄송해요』딸。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미사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외는 말이다。그러나 내자신 그 실천의 단계에 오르려면 아직 요원하다。

내가 그 엄마라면 어쨌을까?

내 그럴 줄 알았다。무슨 계집애가 그렇게 덜렁대냐。빨리 걸레 갖다 닦어/ 고함치는 내 소리 귀에 들리는듯。작은 흠집까지도 빛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신비는 어디서 오는가。더지더지 묻혀온 영혼의 때를 벗고 至純한 어린애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 빛을 보고 싶다。〈中大附高교사〉

종교소식

「한민족의佛教 어제 내일」
東國大서 학술세미나

불교曹溪宗총무원은 「한민족의 불교, 어제와 내일」이란 주제로 부처님오신날기념 학술세미나를 23일하오2시 東國大에서 개최。

주제발표자는 洪庭植 (어제의불교) 孔鍾源 (중앙일보 논설위원·오늘의불교) 李箕永씨 (2천년대의 한국불교) 등。

釋誕日 기념법회
佛日청년회 주최

佛日청년회는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를 28~30일 매일 하오6시30분 法蓮寺에서 개최한다。법문은 28일 九山스님(松廣寺방장)、29일 서윤길교수(東國大)、30일 洪庭植교수(東國大)가 맡는다。

30일 이념문제협의
기독교 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오는 30일 상오10시부터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이념문제협의회를 속개한다。

이번 열리는 협의회는 지난2월11일 永東성결회관에서 李奎浩문교장관의 강연을 듣고 질문을 받아주지않아 중단됐던것을 마무리짓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속회된 협의회에서는「교회와 이념문제」「교회와 국가문제」의 2개 분과로 나누어 토의를 갖고 종합토론을 벌이게된다。

세계복음 宣教大會
26일부터 文化體館서

나라와 세계선교를위한 제2회 세계복음선교대회가 26일~30일문화체육관에서열린다。이번집회에는 金鍾大 金昌仁 李萬信목사등 국내강사외에 능력의 사자인 미국 데니스·굿벨목사가 강사로 참석한다。

「宗教의 근본문제」
孔德洞聖堂서 강좌

천주교 孔德洞교회는 종교의 근본문제에 관한 강좌를 27~29일 연3일간 매일하오 7시반 종교의 근본문제에 관한 강좌를 실시한다。

강사는 金璡河神父로 관심있는 일반인 구도자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번역판 教會史出刊
西江大 신학연구소

西江대학교 신학연구소는 아우구스트·프란츤著「教會史」를 신학총서 22권으로 출판했다。崔奭祐신부번역。

고대의 교회로부터 현재까지 총망라된 이책에는 1대교황 베드로에서 시작 2백66대요한바오로2세에 이르는 교황일람표와 교회사年表등도 실려있다。국판 4백83면 값5천5백원。분도출판사가 간행을 맡았다。

「남는자와…」出刊
朴三中스님 펴내

교도소포교를 위해 15년간 힘써온 朴三中스님의 저서 「남는자와 가는자」가 人文堂에의해 출판됐다。

재소자교화후원회 주최로 26일하오6시 신혼예식장 별관2층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하느님은 無條件의 사랑

말씀

金昌錫
〈驛村洞천주교회 주임神父〉

한 천주교신부가 로마의 聖베드로大聖殿에 가보고 거부반응을 일으켰다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20여년전에 처음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바티칸언덕위에 우뚝서있는 聖베드로대성전앞에 선 나는 큰 산앞에 서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그 대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나는 완전히 壓倒되었다。

그러나 그순간 나에게는 형언할수 없는 거부반응이 일어났다。웅장하고 화려한 그 대성전의 모습이 나자렛의 목수인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교회를하나도 짓지 않았다。산과 들과호수가 그의 교회요 그의 강론대였다。먼지 투성이의 몸으로 보잘것 없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어울린 그의 모습은 聖베드로대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도착한 후 처음 몇달 동안은 그 대성전 안에 발을 들여 놓지 않았었다。

나중에 요한23세 교황에 대한 존경심으로 성베드로대성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졌지만, 거창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의모습은 매력이 없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어리석고 초라한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의모습이요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몰로카이섬의 나환자들의 사도 다미안신부의 이야기가 생각난다。그를 늘 반대하고 말썽을부리던 나환자 하나가 죽어가고 있었다。다미안신부는 모든 것을 잊고 그를 찾아가 환자들끼리도 꺼리는 그의 臨終을 돌보아 주었다。이에 감격한 그 나환자는 다미안신부에게 물었다。『왜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는겁니까?』다미안신부는『하느님 때문에』라고 대답했다。그 나환자는『당신이 믿는 하느님이 도대체 누구요?』라고 물었다。이때 다미안신부의 대답은『하느님은 무조건의 사랑』이라는 한마디였다。「무조건의 사랑」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즘교회는 外的으로 크게 성장했다。교회수도 많아졌고 신자수도 크게늘고 있다。교인들이 잘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靈的으로 무엇인가 갈증을 느끼고 있기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교회는 物量면으로만 늘어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1백20억원이나 들여 건평 1만평의 교회를 짓고있다고 야단들이다。

天主教朝鮮教區設定 1백50주년을 기념해서 汝矣島에서열린 신앙대회는 많은이들에게 깊은 감명을주었고 지금도 많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教會매력은 "어리석고 초라해보일때"

그러나 이런 外的인 示威나 힘의 과시가 과연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사랑의 모습인가? 결코 그렇지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교회는 物量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도 남에게 威壓感을 줄 수 있다。요즘 일부 종교인들은 안에 보통 사람들을 보다도 더 저돌적이고 양보를 안하고 남에게 자기 의사를 강요하는듯한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본다。

그러한 일부 종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남에게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 다시말해 어리석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의심스럽다。

교회는 거창하고 강력하고 당당해 보일때에는 매력이 없다。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리석고 초라해 보일때 오히려 교회는 매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면서도 변명하지 않고 남이 변명해 주기를 바라지도않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묵묵히 죽어간 그리스도, 이것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像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流星의 賦 〈365〉

李炳注作　李友範畵

고독한 英雄 ⑳

용인전투 후 이광을 파직하고 권율이 전라감사겸 순찰사가 되었고, 충청병사 신익은 백의종군케 하고 이광도 또한 백의종군케 했다。

홍계남은 행재지로 장계를 올리는 한편 경기감사 권

식 편제를 허락 받으려고 했으나 무시 당한채있었다。군공 (軍功) 은 혁혁한데 이른바 정규군이 아니라고 하여 되도록이면 무시하려고 들었던 것이다。

홍계남은 하는 수 없이 이천부사 변응성 (利川府使 邊應星) 에게 사람을 보내어 상호 연락을 취할것을 청했다。그런데 변응성은 계남에게 부하와 더불어 자기의 지휘권하로 들어오라는 해괴한 답서를 보내왔다。

조인식이 그 답서를 보자 흥분하여 당장에라도 가서 변응성을 찔러 죽이겠다고 서둘렀다。계남이 이를 만류하길

『변부사는 보통의 부사완 다르다。담력 있고, 총명하매 기필 이전쟁에서 나라에 이바지함이 클것이다。우리를 모르는 까닭에 그런 답서를 쓴것이지 알고서야 어디 그런 편지를 썼겠는가。대의를위해 소분(小憤)을 참도록 하자。지금은 사감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다』

하고 간절했다。

그러나 조인식은

『과천령의 전부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 아니오。홍부장의 공로도 알고 있을 것이 아니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에 관한 한마디의 치사도 없이 우리를 그의 배하가 되라고하니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대의는 크고 소분은 작다고 하나 공은 공대로 알아 줘야 할 것이 아니오이까。우리가 이대로 죽어도 오직 까마귀 밥이 될 뿐일 것이 뻔합니다。신자 (臣子) 로서 나라를 위해 진신갈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나라 또한 그러한 신자에 대해 무언가 성의의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으리까。원통하고 분하옵니다』

하고 조인식이 계남의 손을 잡고 통곡을 했다。계남은 억지로 눈물을 머금고 수연히 말했다。

『누가 알아준다, 안알아준다는게 대의와 무슨 관계가 있을꼬。고시에 남아감의기(男兒感意氣)하면 공명수부론 (功名誰復論) 일꼬 하는 것이 있잖은가』

『나는 다만 홍부장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인식이 손등으로 눈물을 뿌리쳤다。

『외로운 것은 나의 운명일세。고독한것은 나의 팔자일세。나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게』

홍계남이 조인식의 등을 두드렸다。이 광경을 신불이 멀리서 보고 섰더니 뚜벅 가까이에 와서

『우리 울분을 왜놈 죽이는데 풉시다』

하고 눈물을 글썽했다。

신불도 고독한 영웅 홍계남의 심중을 짐작했던 것이다。

그날 밤 홍계남의 부대는 광교산에서 20리 허에 있는 동화역 (同化驛) 을 급습하여 적 주둔병 30명의 목을 베고 조총 십정을 노획했다。이로써 홍계남군이 노획한 조총의 수는 2백정이 넘었는데 유감지사는 화약의 부족이었다。

신불은 화약을 입수 하기 위해 우희다 (宇喜多) 의 본진 (本陣) 을 치자고 건의했다。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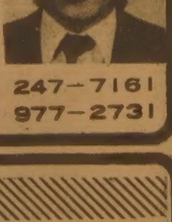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금.토.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푸 300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피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쟈켙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화.수.토
9:00~9:00 목.금
MRS. 전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종합보험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김 흥 량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서울~南原 特急 順天까지

列車운행 5월부터 변경 清涼里~安東 시간短縮

철도청은 5월1일부터 중앙선 清涼里~安東간의 우등특급열차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일부 특급및 보통열차 운행구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철도청은 이에따라 清涼里~安東간에 운행하고있는 4개우등열차를 32분, 2개특급열차를 20분씩 각각 단축하고 서울~南原간에 운행중인 2개특급열차를 順天까지, 釜山~東大邱간 운행하는 2개 특급열차를 店村까지, 大邱~榮州간 1개보통열차를 堤川까지 연장운행한다.

한편 철도청은 大邱~馬山등 5개구간에 운행중인 14개 보통급행열차를 모두 보통으로 격하, 운행하며 경부선의 4개 우등열차를 大邱역에서 정차, 여객을 취급하도록 했다.

철도청은 또 32개저자역은 해당시도와 협의,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는대로 폐선할 계획이다.

한편 교통부는 22일 국제관광공사의 자본금을 현재 3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늘리고 국민관광진흥업무를 추가해 명칭도 한국관광공사로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安益泰유족 한국永住 희망

未亡人·딸등 一家族 내한

애국가의 작곡자 故 安益泰선생의 미망인 로리타·안女史(63)와 3녀 레오놀·안(30), 5살난 손자등 일가족 3명이 한국에 영주키위해 23일하오3시반 KAL 편으로 도착한다.

故安益泰선생의 유족들은 그동안 스페인에서 어렵게살아오다가 작년 KBS가 제작방영한 「코리아·판타지」시사때 내한, 全斗煥 대통령을 만난자리에서 영주하고싶다는 뜻을 밝혔었다.

安益泰선생 유족들에게는 한국도시 개발이 아파트52평짜리 한채를 제공했고 대한항공은 항공료 이사비용을 부담했으며 레오놀·안씨는 KBS 해외방송부에서 취업하게 된다.

"이집 햄버거가 갈수록 작아지는데"
"그런데 값은 갈수록 올라간단 말이야"
"이걸 잘하는 장사라고 부르는거요?!"
"나에게는 그렇소"

體育賞 수상자 결정

체육부는 22일 제20회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체육부는 연구 지도 경기 공로등 4개부문에걸쳐 공적이 현저했던 체육인들을 심사, 연구부문의 서울大師範大學 체육연구소와 서울教育大學 蘇秉憲교수(57)를 비롯한 7명을 올해 체육상 수상자로 결정, 오는 29일하오2시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시상한다.

지도부문 수상자에는 白松彬씨(49·서울女商탁구감독)、朴孝雄씨(44·전남安佐종고 체육주임)、공로부문에는 李性求씨(72·후무협회자문위원)、金昌河씨(58·사격연맹이사)가 각각 뽑혔으며 유도의 朴鍾學(24·쌍용)과여자배드민턴의 黃善愛(21·한체대)는 경기부문수상자로 결정됐다.

수상자공적은 다음과같다.

◆연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체육연구소=장기 종합체육계획등 연구논문다수발표, 체육고교교과서 제작, 외국체육도서보급▲蘇秉憲=체육서적출간, 체육교육에관한 논문발표등 국민건강교육연구에공헌.

◆공로▲李性求=한국농구의 개척자로 여자농구의 기틀을 마련했고 국위선양에공헌▲金昌河=국제사격대회용 공인표적 용구를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스포츠용구 개발에 선도적역할.

◆지도▲白松彬=국가대표선수들을 지도육성배출, 세계대회등에서 우승하는데공헌.▲朴孝雄=펜싱 수영발전에 공헌했고 전남신안군 안좌종합고교남녀하키팀을 창단하는등 도서벽지에서 학원스포츠육성에 공헌.

수상자얼굴

◇蘇秉憲씨 ◇白松彬씨 ◇朴孝雄씨 ◇李性求씨 ◇金昌河씨 ◇朴鍾學선수 ◇黃善愛선수

연구	서울師大 體育연구소	
	蘇秉憲	(서울교육대교수)
지도	白松彬	(女高탁구 감독)
	朴孝雄	(高校 체육교사)
공로	李性求	(籠協 자문위원)
	金昌河	(射擊연맹 이사)
경기	朴鍾學	(유도선수)
	黃善愛	(배드민턴 선수)

장어잡이漁船 침몰

어부 5명失踪

【麗水】21일새벽5시30분께 전남麗川郡南面여도리 동방 6마일 해상에서 장어잡이를 마치고 귀항하던 신성호(6톤·선장 金光天·22·麗川郡南面柳松里)가 심한 파도에 침몰, 배에 타고있던 선원6명중 선장 金씨등 5명이 실종되고 선원 金判龍씨(26·麗川郡南面柳松里)는 바다에서 표류중 이날 하오 5시께 인근을 지나던 어선 금창호(12톤)에 의해 구조됐다.

이같은 사실은 구조된 원金씨가 이날밤 10시께 해경麗水지구대에 신고해 옴으로써 밝혀졌는데 해경은 사고해역에 경비정을 보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光天(22·선장)▲郭龍一(26·선원)▲朴秉玉(17)▲鄭東烈(55·麗水市 公和洞)▲金永培(21·麗水市 蕃洞)【聯】

50代家長 변사

복부찔려 피투성이

【光州】21일 하오7시께 전남光山郡松汀邑道山里1209 申基成씨(52)집 옆에서 집주인 申씨가 칼에 복부를 찔려 신음중인것을 같은 집에사는 尹永權씨(26)가 발견,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 【聯】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남의車 無斷운전하다 일으킨 交通事故

"車主에 賠償책임있다"

大邱地法판시 "열쇠保管 허술"

【大邱】차량소유자가 자동차의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해 다른사람이 무단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차주가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大邱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邊在承부장판사)는 22일 大邱市西區飛山4洞293宋柳順씨등 일가족5명이 오양식품공업사대표 李石雨씨(大邱市中區東仁洞182의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이같이판시, 피고 李씨는 원고 宋씨일가족에게 1천8백9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주는 제3자가 무단운전을 하도록 차량의 열쇠보관을 허술하게 해 이로인해 차량사고가 났을 경우 열쇠를 제대로 보관하지않은 책임을 져야하며 따라서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판시했다.

차주인 피고 李씨는 이날 밤 자신의 회사인 東區新岩3洞211 오양식품공업사 앞에 차를 세워두고 사무실에 승용차열쇠를 놓아둔채 퇴근했는데 이회사직원 신영식씨가 밤11시께 열쇠를 몰래빼내 친구 權중석씨와 함께 이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냈었다.【聯】

"反美의도 없었다"

宣敎協 權皓景총무 良心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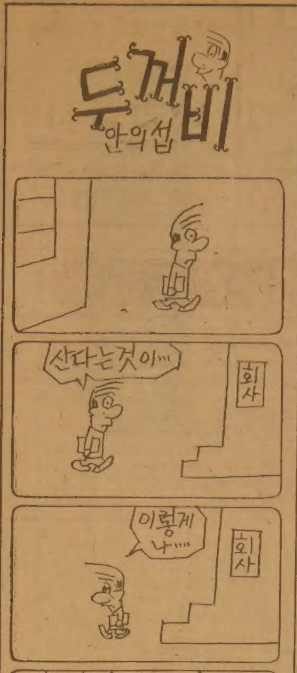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NCC) 인권위원회 李愚貞부위원장은 22일 상오10시 한국 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성명과 관련, 검찰에 환문된 협의회총무 權皓景목사의 양심선언서를 발표했다.

「본협의회의 성명은 反美가 아니다」는 제목의 이선언서에서 權목사는 『지금까지 불미스러웠던 한미관계의 문제점과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며 위컴과 워커의 소환요구도 개인적인 문책에 지나지않는것이지 미국정부나 미국국민을 헐뜯고 반대한적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요구한것은 反美나 한미이간이 아니라 오히려 호혜평등원칙아래 한미간의 영구한 유대를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權목사는 또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의 성명서가 『특정소수에의해 만들어진것처럼 왜곡보도되고있으나 사실은 지난9일의 실행위원회와 15일의 지도·실행위원연석협의를거쳐 공식적인 결의로채택된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심선언서는 權목사가 21일 하오 5시10분 검찰에 출두하기전 NCC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인권위원회는 22일 상오8시 긴급임원회를 열고 이 양심선언서를 정식으로 접수, 발표한 것이다.

NCC인권위원회는 양심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언론기관에 대해▲단순한 협의로 환문당한 사람을 범죄자인것으로 보도하는것은 삼가줄것▲왜곡보도로 국민들이 진실을 혼동하지 않도록할것▲성명서의 내용이 친북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것에 대해 어떤것이 친북괴적인 내용인지 다시 생각해볼것등 3가지를 촉구했다.



결혼예물, 보석및 시계…
미라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심장수술 새生命 찾은 梁亨道군 서울修學여행

친구 18명과 함께…本社도 견학

서울 동작區 藥師會 초청

지난해 한국일보社와 漢大병원의 주선으로 심장병수술을 받아 새 생명을얻은 梁亨道군 (12·경남統營郡龍南面於義국교6년)과 같은학교6년생 어린이 18명이 3박4일의 일정으로 서울로 수학여행을 왔다.

이 섬어린이들은 자매결연단체인 서울銅雀區약사회 (회장 金義燮)의 초청을 받아 姜柄石교장의 인솔로 상경, 한국일보사를 견학하고 昌慶苑, 어린이회관등을 관광하고 24일 돌아갈예정이다.

서울나들이의 선배인 梁군은 이날 건강한 모습으로 가는곳마다 친구들을 위해 설명을 해주기도 했는데 이들은 약사회에서 준 옷가지도 한벌씩 선물로받았다.

◇「先輩」답게 앞장서 觀光안내 중앙청앞길을 걸으며 서울시내를 관광견학하는 섬어린이들, 손가락질하는소년이 梁亨道군.

수류탄 2發 갖고 脫營兵 서울潛入

수류탄2발을 휴대한 탈영병이 서울에 잠입, 경찰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있다.

22일 상오2시15분께 경기 坡州郡月籠面 月籠다리앞길에서 육군모부대소속 유병호 이병(21)이 지나가던 경기7차9607호 용달차(운전사 金秀明·37)를 세워 수류탄을 꺼내보이며 운전사金씨를 위협하고 차에 탄뒤 새벽3시35분께 서울中區萬里洞 서부역앞에서내려 달아났다.

운전사 金씨에 의하면 이날차주인 이창순씨(47)와 함께 汶山을떠나 서울로 가는데 月籠다리에서 야전잠바에 회운동화를신은 군인이 차를세우고 강제로올라탄뒤 주머니에있던 수류탄2발을 내보이며 『말을듣지않으면 죽인다』고 위협, 江南고속터미널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는것.

金씨가 터미널까지는 갈수없다고하자 서부역에 내려줄것을요구해 태워다준뒤 이같은사실을 서울龍山경찰서에 신고했다.

유이병은 차를탄뒤 옆자리에 타고있던 차주 이씨의 감색잠바와 노란색 운동화를 빼어신고 자신이 입고있던 야전잠바와 회운동화를 차안에 놓고 달아났다.

경찰은 유이병의 집이 경북大邱市飛山6洞486임을 밝혀내 大邱경찰에 연락하는 한편 고속버스터미널과 역등에 경찰을 배치, 경비를 강화했다.

蔚珍서도 寶物船 인양작업

1兆원어치 실은 러시아艦

【蔚珍】울릉도근해에서 침몰된 러시아보물선 인양작업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경북蔚珍郡北面羅谷里앞 4㎞해저에서 또다른 러시아순양함 1척의 인양작업이 준비중에있다.

22일 약3천톤급의 이순양함 인양작업을 서두르고있는 오정환씨(56·忠州市社稷洞7)에 따르면 울릉도근해에서 침몰된 러시아순양함 드미트리·돈스코이호(6천2백톤)와 같은한대소속의 순양함1척이 이해역에서 침몰됐다는 사실을 일본해전사에서 확인, 탐사작업을 준비중이라는것.

浦項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매장물 발굴승인을받은 오씨는 일본해저탐사전문회사와 계약, 탐사장비가 도착하는데로 24일부터 본격적인 수중탐사를 시작할계획이다.【聯】

「아틀랜타」또勝利

美프로野球、13連勝

9회말 2死후 만루에서 터진 롤틀·워싱턴의 결승2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아틀랜타·브레이브스가 21일 또다시 신시내티·레즈에 4-3으로 역전승, 12연승의 메이저·리그 최다연승 기록을 13연승으로 올려놓았다.

브레이브스는 3회초 레즈에 3점 호머를 맞아 3-0으로 뒤지다가 크리스·챔블리스의 5회말 솔로·호머와 7회말 추가득점으로 3-2로 추격한후 20일밤 결승타를 때렸던 워싱턴이 또다시 9회말 2死후 만루에서 역전2타점 결승타를 터뜨려 4-3으로 게임을 뒤집었다. 【아틀랜타22日UPI聯】

86년 월드컵蹴球 콜롬비아서 개최

【보고타(콜롬비아)21日AP＝聯】훌리오·투르바이·아얄라 콜롬비아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86년 월드컵 축구대회 주최계획을 승인했다고 알폰소·세니오르 콜롬비아축구연맹회장이 21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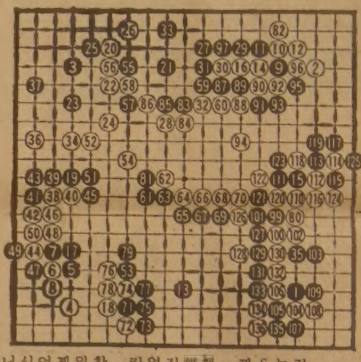
세니오르회장은 이날 투르바이·아얄라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후 아얄라 대통령이 민간부문에서 이대회의 재정을 담당할것을 조건으로 이대회주최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앞서 콜롬비아를 86년 월드컵축구대회개최국으로 선정했으나 콜롬비아에서는 대회주최를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벌어졌었다.

HAPPY TIME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7局 總譜136手完白不計勝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徐能旭<2勝3敗>
黑(6段)姜哲民<0勝6敗>

姜6段 고역의 名人戰

姜6단은 마지막판인 이바둑도 역전패했다. 「역전의명수」라면 이기는쪽으로 해석되는 것이 통례인데 姜6단의 경우는 그반대이니 실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에에따라 허심탄회하게 『이거 또당했구나』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프로棋士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패도지한 것이어서 도저히 태연할수가 없었을게다. 좌우간 일후의 분발을 바라고싶어지는 것이다.

한편 徐6단도 안타까운심정은 마찬가지. 나머지 1판인 河燦錫7단과의 바둑을 꼭 이겨야 전년도 순위관계로 겨우 시드組에 잔류하는데 과연 어떨는지. 현재 2승2패인 河7단도 시드組에 남으려고 필승을 기할터이니 서로가 결코 만만히 볼수가 없다.

姜6단은 이바둑도 고집처럼 대세력작전을 들고나왔다. 특히 黑5、7과 9、11은 앞서 河7단에대해서 시도했던 까닭에 자신있는 포진이었겠지만 좌변을 白38이하 50、또52、54로 파괴당하여 실패작임이 분명하다.

그뒤 중앙에서 81로 응수를 타진한 수에 대하여 白이 우상귀를 82로 내려선수가 좋았는듯。 黑83이하 97까지 회돌이선수로 상변을 완생하고 우변 白80와 승부수를 99부터 공격하게되어서는 黑勝의 양상이었다.

白100이하는 이판사판식의 육쇄수단。 그런데 이白을 정면으로 다스린것이 무리였다。 105로 106에 그리고 107로 134에 각각 뻗어 귀를 내어주어도 낙승인것을 굳이 전멸시키려 하다가 白126、128이하의 수단이 발생하여 허무하게 역전패한 것이다。 이번에도 운이없었다고 나할까。 98…이음。 【一신】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93>

朴婉緒 作
金光培 畵

明暗 ㉗

싸운 걸 그날로 지딱지딱 풀지않고 쩌두면 장차 큰 병이 된다는 주인 아줌마의 말이 크나큰 진리처럼 그의 암담한 마음에 한줄기 빛이 되었다.

큰 병은 나중이고, 그상태로는 당장 그밤을 제대로 잘수있을 것같지도 않았다. 그는 한달음으로 버스정류장으로 뛰어갔다. 수지는 거기 있지않았다. 그는 마치 방금 떠난 버스에 수지가 타고간 것처럼 발을 동동 굴렀다.

그리고 수지가 집에 도착할 시간까지를 정류장근방을 배회하며 보냈다. 서로의 목소리라도 오늘밤안에 들어두지않으면 꼭 무슨일이 날것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그는 시계를 보고 또 봤다.

수지가 집에 도착했으리라고 짐작될 무렵엔 거의 통금이 임박해 있었다. 여자네 집에서 인정 받지못한 남자가 전화 걸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재는 그런 체면이나 분별력을 잃고 있었다.

안될 땐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전화를 받은 건 하필 수철이었다. 거만하고 짜증스러운 남자 목소리를 듣자 아차, 싶었으나 이판사판이라는 배짱 같은 것도 생겼다.

『수지 좀 바꿔주십시오』

『당신 누구야?』

『인재라는 같은 학교 친구입니다』

『이런 배우지못한 사람같으니라구. 지금 몇신줄 알아? 양가집 처녀한테 외간남자가 전화할 시간이 따로 있지』

『외간남자라뇨? 우린 같은 학교친구라니까요』

『수지는 오늘 졸업했네。 오늘부터 학교 친구는 없어。 곧 결혼할 몸이구。 약혼자 아니면 다 외간남자야。 다신 함부로 전화질하지말게。 수지한테도 딴식구들한테도 엄히 일러놓을테니까』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외간 남자라니、 평소에도 그집 식구의 전화받는 예절은 상식이하로 무례했지만 그래도 그런 예절없음속에는 은연중 인재를 수지가 좋아하는 남자로 인정하고 골탕먹이려는 저의가 느껴졌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악의가 너무 지나칠 적에도 기가 죽거나 화가 나기보다는 되려 이쪽에서 관대하게 봐주리라는 우월감 같은게 있었다。 그런데 외간 남자라니…。

인재는 그 생급스러운 외간남자취급에 소스라쳤고 공포감을느꼈다。 마치 간부(姦夫)라는 소리처럼 불결하게 들렸다。 그를 간부 취급하려면 수지가 임자있는 몸이어야한다。 그럴리가? 그 동안에 그럴리가…。

인재와 수지의 교제기간만큼이나 오랫동안의 수지네식구들의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연인취급이 아까 올케의 태도가 돌변해서 애교까지 부릴만큼 친절해지면서 가장 친한 친구취급을 해주었다。 그러더니 불과 한시간만에 오빠라는 사람은 숫제 간부취급을 하려든다。

어떻게 두 사람이 똑 같이 아름답고 보석처럼 빛나는 젊은 날을 몽땅 바쳐 가꾼 사랑이 순전히 타의(他意)에 의해 그것도 불과 몇시간이라는 짧은 동안에 그렇게 무참히 짓밟힐수가 있단 말인가。 안돼、 안돼、 그는 그 악랄한 타의로부터 연인을 탈환하기위해 준마처럼 갈기를 곧두세우고 달음질쳤다。

그러나 곧 통금(通禁)이 그를 가로막았고、 그는 선량하고 소심한 시민답게 그 위력에 조건없이 굴종했다。

헐레벌떡 가까스로 돌아온 하숙방에서 인재는 좀 전에 수지가 그랬던 것처럼 거기 널린 신산스러운 궁상에 진저리를쳤다。 여지껏 그걸 못봤다니 믿을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일은 어차피 피할수없었다。

김인규회계사무소
개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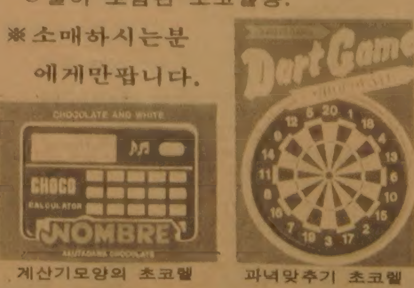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공인회계사
김인규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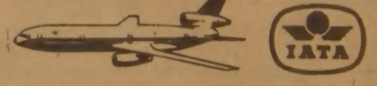
일본에서 수입된
각종초코렡대세일
○인기집중(일본으로 부터 수입
○어린이, 어른들을위한 초코렡
○각종(계산기·카메라·장난감 라이터형등)모형의 초코렡이 있읍니다.
○술이 포함된 초코렡등.
※소매하시는분 에게만팝니다.



계산기모양의 초코렡 과녁맞추기 초코렡
BROOKVIEW CONFECTIONS INTERNATIONAL INC.
2462 YONGE ST. TOR.
(영×에그린톤-에그린톤바로북쪽)
전화 : 487-3451

당신의 비지네스를 돕는 비데오
$EARN EXTRA CASH$
★빌려 드립니다
레스토랑, 술집, FAST FOOD, 버라이어티 스토아, 커피샾등 장소에 적합합니다.

※흥미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 : 429-3929
요코하마 코인 머쉰 LTD.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6004
R) 293-9970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전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약 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 태권도장
1065 St. Clair W.
전화 : 652-0000 정 영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구독신청 (월~토)
☎ : 533-2361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6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 춘 봉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3월말경에 Dundas와 Bloor사이 로상에서 본인 임동호의 여권을 분실하였기에 유감스럽게도 여권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바 혹 이름으로라도 분실된 여권임을 찾을수있음까 하여 광고를 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연락처 : 536-4039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현찰지불) 전화 : 533-7759 Mr. 박
지렁이 잡으러가는 지역에 좋은 농장이 많음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전화: 534-5068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는
치과에서 일하실 Receptionist구함
전화 : 233-9454, 781-9591, 535-2798

Juice Bar에서(주방)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영어 못 하셔도 관계없음
전화 : 438-0403 6시이후

Gas Attendant구함
전화 : 782-6311 (Mr. Lee)

청소하실분 구함
전화 : 630-2450 (Mr. Cho)

지렁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 291-4547

입주하셔서 애기(2살반) 봐주실분 구함
(주 5일 화~토요일)
전화 : 536-5914 (9시 이후) 783-0683 (Mrs. 하)

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파트타임)
미시사가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822-4179

Store Manager 구함
월 $2,500 이상 보장. 몬트리올지역. 유학생도 가함.
전화 : 932-7775, 524-7775

꼭히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지렁이잡이에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매주 금요일지불함)
전화 : 656-8937 (Annagickopoulos)

DONUTS SHOP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실 여자분(Full Time)구함
전화 : 531-2689

남자 주방 헬퍼와 여자 웨이트레스 구함.
628 BLOOR ST. W.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롬), 531-0773(김)

---

1) 배우실 분
컴퓨터식자 · 사진식자 (한글타자 경험자면 더 환영)
2) 여름방학동안 Full Time 일할 학생구함.(24세 미만)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1

남·녀 캐셔나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138 Mr. 리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이틀마다 지불함. 영어로 문의 바람.
전화 : 534-8121 Dennis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5천불+4천(티켓), Asking $29,900
렌트 $400, 6년리스, 800 sq.ft(스넥비포함)
위치 : 오샤와(Oshawa) 주인이 유럽으로 떠나기 때문에 급매 원함
Bagot Realty Inc. Realtor
전화 : 1-579-4010(B) 1-683-8154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컴퓨터식자기 운영으로 인해 과거에 사용하던 사진식자기(SAKEN SPICA-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533-2364 Mrs. 김

몬트리얼에 있는 맥주와 포도주도 파는 그로서리 스토어
년 매상 : $235,000 아스킹 : $39,000+스탁
전화 : 1-514-932-6046(Mr.Kim)

콘도미니움 2BedRoom 세놓음(월 $500)
5월1일 입주가능. Islington×F inch
전화 : 745-4347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가게 팝니다.
전화 : 656-5358(저녁 8시이후)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

1. 좋은자리에 새로 OPEN하는 DONUTS SHOP
현찰 $40,000 요구 리스: 20년 Rent: $2,300
아스킹 : $140,000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가게달린 빌딩 매매〉
경쟁없는 지역임.(칼레도니아 × 에그린톤)
2층에는 3베드룸 아파트와 2개의 부엌
큰 리빙룸과 큰 지하실
CASA 복덕방 Peter Chung
(B) 636-1504 (R) 635-8971
※영어로 문의하십시요

각종보석 인벤토리 SALE
세번씩 보석디자인상을 받은바있는 바루주·타바키안씨(Varouj·Tabakian)가 처음으로 Public에게 Open하며 최저가격으로 봉사할 예정임.
107 Church ST. #400
Call "Varouj(바루쥬)" 362-0507
Open Hour : 10 : 00A·M - 6 : 00P·M

CN Tower에 가까이 있는 큰 주차장 딸린 식당(Tavern)매매
좌석 : 100석이상. 아스킹 : $180,000. Call Jim 596-6706
영어에 능한분이 연락주시기 바람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성업중인 식당(Tavern)급매(L.L.B.O.있음)
리스: 18년, 주매상: $10,000이상,
좌석: 150(1층), 218(Banquet Hall)
아스킹 프라이스: $300,000 (Cash일 경우 $250,000)
Downpayment : $150,000 이상 요구
위치: Birchmount와 남쪽 Eglinton 전화 : 222-7494
(12:00-2:00의 점심시간은 피해서 해주실 것)

---

1) 그로서리 (주매상 : $7,500) 아스킹 : $70,000
2) Fish & Chips (Yonge×Bloor) 아스킹 : $99,000
3) 건물 (Bloor × Christie) 아스킹 : $159,000
4) 건물과 식당 (Dundas-Hwy10) 아스킹 : $329,000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황 순 일 481-3443.

Pape Subway 근처에 좋은 장소의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아스킹 : $62,000 주매상 : $8,000
Carol Chao 596-8681. Julius Aloi Real Estate.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틀림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000. 아스킹: $35,000+스탁
전화 : 465-4385

PIZZA STORE 매매 (London, Ont.)
주매상 : $2,000이상.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까지
전화 : 1-519-681-7631(B) 오후 4시이후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 +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좋은 위치에 모든 라이센스 갖추고 있는 식당급매
좌석 : 180 (Banquet Room은 따로 있음)
주매상 : $10,000~$12,000. 렌트 : $850(Mon.)
Owner will take back mortgage.
Asking : $250,000
Call Joe. 787-0491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Tuck Shop) 전화 : 842-2917

세탁소 팝니다. 그리고. Shoe Repair. Lottery Tickets.
Rug Cleanig and Laundry
461044 Ontario Ltd. 전화 : 595-1570

좋은 위치에 있는 조그만 가게 Lease를 팝니다.
Smoke Shop이나 Dry Cleaning Depot. 하기에 적당함.
혼자서 하기에 알맞음. 아스킹: $3,100 전화: 431-1358

일손이 모자라는 관계로 이윤좋은 과일및 꽃가게를 급매.
주일은 휴업이고 6일 주매상 현재 $4,000~$4,500.
계속 주매상이 오르고 있으며 장비값만 $50,000이상임.
아스킹 : $48,000. 관심있으신분은 O·K오로바디 김희삼에게 연락 주세요.(Carlaw×Gerrard)
전화 : 251-9889(B) 242-4551(R)

★바쁜 쇼핑·몰안의 Food Store
★3개의 상점과 2개의 3BedRoom Apts와 3개의 (BedRoom Apts가 있는 2층 빌딩
Queen St. W. 에위치(Dennis or Sam)
전화 : 534-3089 or 466-9609

가정 형편상 급매
2층에 3베드룸과 뒷뜰에는 넓은 정원이 있읍니다. 가게달린 건물임.
$15,000 다운페이.
전화 : 242-3873 Miss. 오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렌트 위치:20 Mobile Dr(한인회관) 크기:1)3.6m×3.8m ,2)2.6m×4.4m 위의 방이 같이옆에 위치해서 있으며 함께 또는 각기 임대 할수도 있음. 전화 : 755-9288

단독 또는 공동으로 렌트 하실분
Young St.(로렌스×욕·밀 중간지점)
전화 : 481-3677 Frank

하우스 렌트

2 Bedrm-렌트 King+Dufferin
전화 : 536-4250(오후6시이후) 535-1251(낮)

집 독채 세놓읍니다.
방4개. 지하실 꾸며져 있음.(세파드+파머시)
전화 : 757-6334

방세놓읍니다.
◉다운타운지역 (Church × Dundas)
◉St.Clair × Weston 전화 : 763-328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 역 및 통 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천) 10 SUNRISE AVE. UNIT203. 2R1 전화 : 759-9505 (5시이후)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482-0166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